54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報告書

THE 54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22.5.30

SEOUL ⇄ TOKYO

KJE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KJCF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서울) 이취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도쿄)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

| 개회인사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 내빈인사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 기조연설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 (주)LS 의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

| 신산업무역회의보고 |

이케다 마사키 ㈜호텔오쿠라도쿄 회장

| 전체회의 |

〈좌장〉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고문

〈발표자〉

이경상 KAIST 교수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주) 회장

사토 토시노부 SJC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주) 사장)

박기태 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 질의응답 |

[서울회의장]

이수철 (주)GH홀딩스 회장

유명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구치 가즈히로 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도쿄회의장]

코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주) 명예고문

무라야마 료 도레이(주) 고문

이석우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

| 공동성명낭독 |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우치다 도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서울회의장 전경 |

| 동경회의장 전경 |

목 차

Ⅰ. 개최성과 ····· 1

Ⅱ. 공동성명 ····· 5

Ⅲ. 회의일정 ····· 7

Ⅳ. 발표내용(요약) ····· 8

Ⅴ. 대표단 명단

1. 한국측 대표단 명단 ····· 17

2. 일본측 대표단 명단 ····· 27

Ⅵ. 의사록 ····· 37

1. 개 회 식

1) 단장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측 단장 ····· 39

김 윤(金 銑) 한국측 단장 ····· 40

2) 내빈인사

이와타 가즈치카 (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41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42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44

강창일(姜昌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46

2. 기조강연

1) 일본측 기조강연

오카 모토유키(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48

2) 한국측 기조강연

구자열(具滋烈) 한국무역협회 회장 · (주)LS 의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 52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 · 제언

1) 이케다 마사키(池田 正己) ㈜호텔오쿠라도쿄 회장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일본측 체어맨 대행 ····· 57

4. 전체회의

1) 우에다 카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주) 회장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한일관계에서 배우다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의 정신」 ····· 62

2) 이경상(李京相) KAIST 교수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 64

3) 사토 토시노부 (佐藤 利宣)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주) 사장

「한일 공동 에너지사업 실현을 향하여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 68

4)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 한일 청년인재플랫폼 구축」 ····· 73

5. 폐 회 식

1) 공동성명 채택 ····· 84

2) 폐회인사

김 윤(金 鉉) 한국측 단장 ····· 86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측 단장 ····· 86

[부록]

1. 주요 언론 기사 모음 ····· 89

2.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 조사 결과 ····· 267

3.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국어, 일본어) ····· 277

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성과

ⅰ. 개요

1. **개최일시** : 2022. 5. 30(월) 13:30~18:00

2. **개최장소** : 롯데호텔 서울⇔오쿠라호텔 도쿄 연결 화상회의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279명**
   - o 한국 측 : 김 윤(金 銑)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63명
   - o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16명

4. **회의주제 :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ⅱ.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회의**로서,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경제연계 및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의미

- o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연 인원 11,914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 : 6,203명, 일본 : 5,711명

□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o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 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담은 성명서를 선언

  -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ㅇ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경제활동에도 영향**

-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

ㅇ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

-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

ㅇ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

- 다 음 -

1. **경제연계 확대**
   -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음

   -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

   -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

2. **상호교류의 증진**
   - 한일 경제인은, '한일경제인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협력하며, 세계를 무대로 성과 거양

   - **미래를 향해서 한층 더 확대**를 목표로, **폭넓은 경제교류**와 함께 **청소년 및 차세대 등의 인재 교류**,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교류** 등에 협력

3. **정부에 대한 기대**
   -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

□ 내빈인사를 통해 양국 경제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미래지향의 한일경제협력을 당부**

ㅇ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ㅇ (주일한국대사관) **탄소중립 실현, 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향한 협력,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성원 당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NHK, 일본경제신문, 산케이신문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ㅇ 언론사 지면·사진기사 포함 151여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됨

ㅇ 현장 취재 언론사
연합뉴스, 산업부, 조선일보, 조선비즈, 서울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미디어펜산업2부, 이데일리, 데일리한국, 아시아투데이, 더스쿠프, 시사경제주간지, 농업경제신문, 무역협회홍보실, 교도통신(NNA), NHK서울지국, 뉴스1, 아시아경제, 뉴스웨이

2.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ㅇ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회의장에 **280여명에 이르는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한국 163명, 일본 116명 (韓회의장 170명(韓136/日34), 日회의장 109명(日82/韓27))

ㅇ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한 일본 입국 제한 및 격리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을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 경제면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멈춤없는 교류와 경제협력의 등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음

-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연계 확대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처럼 지난 3년간 경색됐던 **양국 경제 교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안전보장, 한일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것은 큰 진전임

Ⅱ.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2년 5월 30일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16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다.

1969년 이래,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이어온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번에 54회째를 맞이했다. 그간 엄중한 상황이 수 차례 있었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온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양국 경제인들은 환영한다.

전 세계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19도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왕래할 날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이러한 공통 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경제연계 확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하다.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

2. 상호교류의 증진

한일 경제인은, 본 '한일경제인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협력하며, 세계를 무대로 성과를 거두어왔다. 미래를 향해서 한층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폭넓은 경제교류와 함께 청소년 및 차세대 등의 인재 교류, '한일 축제한마당' 등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교류 등에 힘쓴다.

3. 정부에 대한 기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2년 5월 30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 日韓経済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

第54回日韓経済人会議を2022年5月30日に日本国東京都にて、大韓民国ソウル特別市とオンライン接続して開催し、日本側は佐々木幹夫団長以下116名、韓国側からは金銑団長以下163名が参加した。

1969年以来、一度も中断することなく続いてきた日韓経済人会議が、今回、54回目を迎えた。厳しい状況が幾度もありながら、交流の灯を守った諸先輩に感謝を申し上げたい。今もなお、日韓の間には解決が簡単ではない問題がいくつも横たわり、厳しい両国関係により一部は経済活動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最近、両国間で「これ以上の関係悪化は放置できない」という認識の共有とともに、関係改善に向けた動きが出てきたことを、両国経済人は歓迎する。

世界中に大きな苦痛をもたらした新型コロナウィルスも安定局面に近づき、希望が見えてきたことを喜ばしく思う。自由に往来できる日も遠くないものと期待したい。一方、世界経済を取り巻く環境は、ウクライナ戦争とこれに伴う国際的な経済制裁によって不透明さを増している。厳しい状況においてこそ、両国の協力、連携が危機を克服する力となる。

このような共通認識の下、「相手の立場に立って考え（易地思之）」、「経済人自ら取り組む」との新産業貿易会議の提言を踏まえつつ、以下のとおり合意した。

- 記 -

1．経済連携の拡大

国土が狭く資源が乏しいという点で両国を取り巻く環境は類似し、環境やエネルギー、脱炭素、少子高齢化など共通する課題が多い。さらには、世界情勢やポストコロナなどめまぐるしい変化の中にあっては、両国の連携や協力、分担などが一層重要となる。第三国におけるプロジェクトの拡大を含め、エネルギー安全保障等、日韓経済人は積み重ねてきた信頼とパートナーシップのもと積極的に力を合わせる。

2．相互交流の増進

日韓の経済人は、この「日韓経済人会議」を含む様々なチャンネルを通じて交流を深め、信頼を築き、ともに協力し、世界を舞台に成果を上げてきた。未来に向けて一層広げていくことをめざし、幅広い経済交流とともに、青少年や次世代などの人材交流、「日韓交流おまつり」などお互いの距離を縮める文化交流といった交流に取り組む。

3．政府への期待

政府間の対話が進展し、両国の経済人が安心して自由に経済活動が行え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

なお、次回の第55回日韓経済人会議は、2023年に韓国において開催する。

2022年5月30日

韓国側代表団団長　金　　銑
日本側代表団団長　佐々木幹夫

Ⅲ.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오찬회 12:00~13:10	▸ 단장단 (37층 가넷스위트) & 일반단원 (2층 크리스탈볼룸Ⅲ)
개회 및 개회사 13:30~14:00	▸ 개회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미쓰비시상사㈜ 前회장 ▸ 김 윤(金 鉉)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내빈인사 14:05~14:25	▸ 이와타 가즈치카(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강창일(姜昌一) 주일한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기조연설 14:30~15:10	▸ 일본측 : 오카 모토유끼(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한국측 : 구자열(具滋烈) 한국무역협회 회장·㈜LS 의장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
신산업무역회의 제언·보고 15:10~15:20	▸ 이케다 마사키(池田 正己) ㈜호텔오쿠라도쿄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
15:20~15:40	Coffee Break
전체회의 15:40~17:25 (15분×4명발표)	□ 좌장 :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고문 ○ 일본측 발표자 : 우에다 가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 회장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한일관계에서 배우는 아메노모리 호슈 (에도시대의 외교관) 의 정신」 ○ 한국측 발표자 : 이경상(李京相)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 일본측 발표자 : 사토 토시노부(佐藤 利宣)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업 실현을 향하여」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 ○ 한국측 발표자 :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 한일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 ○ 의견교환
17:25~17:35	휴식 (공동성명(안) 배포)
폐회식 17:35~18:00	○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김 윤(金 鉉)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Ⅳ.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내용(요약)

(단장인사)

□ (韓) 김 윤(金 鉉) 한일경제협회 회장

○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함을 강조**

○ 한일 양국간에는 **과거사를 둘러 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오랜 갈등으로 남아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기를 갈망**하며,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 가고, 양국 정치, 외교분야의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 예측가능성을 열어 주기를 기대

○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갈 것을 요망**

□ (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정부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양국의 경제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화)

○ 협회 활동의 3대 기둥인 **경제교류, 인재교류, 문화교류 사업** 지속, **청소년·지역교류확대**

(내빈인사)

□ (韓)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공동의 문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 **핵심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산업, 에너지, 원자재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2050년 탄소중립)**
  - *** 분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 비용과 시간을 절감**

○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고, 정부는 후방에서 기업을 든든히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는 하나의 팀, ONE TEAM이 되어 나가기를 기대**

□ (韓)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 **탄소중립 실현,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

-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 관심과 성원을 당부

□ (日) 이와타 가즈치카(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코로나 사태, 서플라이 체인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 등 세계경제침체 예상

○ 한일은 에너지 안보, 공급망, 기후변화,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과제 안고 있음

○ 건전한 한일관계는 국제질서 구축 및 전세계 평화 번영에 불가피
  - 한일 관계 어려운 상황, 징용공 사태 악화되면 한일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새정부 출범이후, 한일관계 개선 기대하며, 좋은 관계 되돌리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

□ (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의원

○ 1965년 양국간 약속을 토대로 한일관계 개선, 이 틀을 지키면서 한일관계 발전위해 노력

○ 안전보장 면에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어려운 시기 직면
  - 아시아에서의 형상변화를 관망해서는 안되며, 한미일 연계를 통해 안보 확보 필요

○ 양국은 서로 이웃나라로 국민교류를 깊이해 나가야 함

○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가 개선의 첫걸음, 1천만명 인적교류 흐름 이어나갈 계획

(기조연설)

□ (韓) 구자열(具滋烈) 한국무역협회 회장·㈜LS 의장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격변기 속 한일관계, 양국 간 화해에서 발원한 동북아발 평화의 훈풍으로 나아가는 길 제시**
  -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 한일관계 회복하고 전례없는 우호관계를 향해 나아갈 길 제시

○ **한일관계의 필요성과 당위성**
  - 우호적 한일관계와 경제성장의 역사적 상관성(우호적인 한일관계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 조선통신사 운영,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오늘날의 한일관계의 중요성(반도체 산업의 상호호혜적 협력, RCEP은 양국간 첫 FTA)

○ **한국 속 일본, 일본 속 한국**
- 코로나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신생문화(도한놀이/渡韓ごっこ), 동두천 니지모리 스튜디오, 캐릭터 산업, 4차 한류 붐)
-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한일 문화교류

○ **기업인 주도의 개선노력**
- 세기적 전환기 대응 및 미래 준비
-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인 협력 방안**
  * 경제교류확대 위해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재개**, 필수격리로 인한 비즈니스차질 해소
  * **한일 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을 확대(수소/암모니아 사회 실현)**
  *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참가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

□ (日) 오카 모토유끼(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한국 정세**(한국 제 20대 대통령 취임 축하), **글로벌 경제의 변화·상황·사회과제에 대해**
- 경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너지·식량가격 급등, 물류 혼란·인력 부족, 재정지출 제약,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의 긴축 시작 및 경기 후퇴 리스크)
- 문제 제기 : 지정학적 움직임과 세계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계는 일치단결하여 VUCA시대(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를 극복,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필요

○ **한일관계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해**

① **현상 인식**
- 한일 양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일관계 및 상대국에 대한 인상·호감도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감염 확산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중단, 한국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과 셔틀외교 재개 지침 제시, 교류 재개·가속화 기대

②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해**
- 양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한 역사가 있었음
- 1998년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경제협력 및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 제휴, 문화 개방,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촉진되었음

○ **경제계가 해야 할 역할 (스미토모의 사업 정신과 한일협력의 의의)**

① **글로벌 사회과제에 대해**
- 기후변화 대응, ESG 및 SDGs의 추진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장래를 향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

②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대처에 대해**

- 2009년에 한국은행이 '장수기업'에 대한 목록을 발표
  (200년 이상인 기업 : 세계 41개국, 약 5천 6백사(5,586사), 그중 50% 이상이, 일본기업)
- 장수 기업에 공통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 정신임
- 특히, **「공리공익(公利公益)」과「상생공영(共存共栄)」정신은, 한일 기업간 제휴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 **한일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제3국 안건 대처 실적 소개)**

- 2021년 말 시점에서 **누계 121건, 투자액 27조6,000억엔**. 이러한 협력·제휴는, 제3국의 활성화 및 성장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
- 제3국 안건의 대처를 통해 한일 협력 분야를 넓히고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과제 해결에 공헌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으로 한일 양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

○ **한일의 인적 교류, 상호 이해·상호 신뢰의 중요성**

① **청소년 교류 실적 소개**

- 1985년부터「청소년교류 한국대학생 방일단」으로 시작해,「한일 고교생교류캠프」,「한일학생미래회의」등을 개최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역시 페이스투 페이스에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한 소통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인식

② **교류의 틀과 함께 중요한 것(교육) : 유년기부터 서로 '친근함'을 가질 것**

○ **한일이 지향하는 방향성**

① **공통점 (보편적 가치관 공유)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 존중의 가치관 공유

②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 1607년~1811년 약 200년 동안 12차례 일본방문,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당시 쇄국을 했던 일본이지만 조선국과의 사이에는 외교경로가 있어 통신사 왕래 시에는 일본 각 지역과의 폭넓은 교류, 조선통신사는 평화외교의 상징
- **조선통신사의 역사에서 배울점은, 통신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마음**
- "사람과 사람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는 원래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한국에는 있음. 서로 이러한 정신으로 교류를 거듭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일

③ **양국간 관계와 위상의 변화**

- 한일관계에는 다양한 역사가 있고 많은 현안 사항, 과제가 있음
-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만의 관계에 그치지 않음
- 양국에는 아시아 속에서, 또 글로벌 사회에서도 발휘해 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

○ **미래지향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해**

① **메시지**

-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때도 다양한 장벽이 존재했고, 또 여러 의견이 있었던 가운데 양국 정상이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으며,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을 되새길 때
- 한일 양국 정부의 수장이 그 정신을 되새기고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버전 업 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이루길 기대**

② **한일경제인회의 의의에 대해**

-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리
- 선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현역 경제계의 리더끼리는, 흔들림 없는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위에, 진심으로 한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
-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밝고 설레는 친근한 미래를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것은 현역 경제계의 리더인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

(전체회의)

□ **(韓) 이경상(李京相)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중국발 경제의 팬데믹**

- GVC 패러다임 변화 : 신냉전·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규제와 순환경제의 등장,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전환, 기후 영향·자원 생태계 변화

○ **신냉전·글로벌 공급망 재편(중국·러시아 이탈로 글로벌화 종말 초래, 글로벌 제조 슈퍼 허브 국가인 중국의 위상 침몰)**

- ①글로벌 제조공장 이전 대안(전략적 대안 : 멕시코, 정치적 대안 : 인도, 지역적 대안 : 아세안), ②향후 위험 산업(1차 위험군 : **코로나 위기** 영향/ MICE산업, 항공, 관광, 석유, 자동차 등, 2차 위험군 : **공급망 위기** 영향/ 섬유, 자본재, 시멘트 등 산업용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 높은 기업, 3차 위험군 : **금융 위기** 영향/ 중국거래 자기자본 취약 기업) ③한일 모두 중국 리스크는 위협(제조가 GDP에 미치는 영향과 하이테크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

○ **탄소중립 규제와 순환경제(폐기물·오염 제거, 제품 및 재료 순환, 자연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 시스템)의 등장**

- 탄소 발생의 국가별 순위- 한국(8위)과 일본(5위)의 위협
- ①순환 경제의 소재 혁신은 공급망을 변화(버섯기반·사과껍질 가죽개발, 생분해성 포장재, 바나나껍질로 비닐 대체 개발) ②순환 경제는 GVC 생태계의 체계를 변화 (자동차 산업에서 모빌리티 생태계로 발전) ③순환 경제는 逆物流 패러다임을 변화 : 역물류 디지털 전환이 필요 (건설용 중장비 재제조 혁신 사례, 고객에게 새제품 비용의 50~60%로 동일한 성능 확신 및 교육시키는 것이 성공요인)

○ **GVC의 변화에 대한 대응**
- 전략1 : **미래의 돌발 변화에 시나리오로 대응**(미래위험 유발요인 파악, 치명적 불확실성 파악,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징후 예측과 행동)
- 전략2 :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GVC 관리**(GVC 분산화의 선제적 대응, 원자재 변화에 탄력적 대응, 증가하는 물류비용 절감, 소비자 직접 판매기술 확보)
- 전략3 : **Digital Twin으로 예지력을 향상**(Digital Twin='물체+센서→가상공간+인공지능'의 연결, 디지털 트윈은 공급망 관리기업에게 매력적인 옵션, 물류혁신에 필수적)

□ (韓)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 한일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

○ (배경)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기조연설**(2021년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으로는 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
- **한일 양국의 비공통문제는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 도모**(예: 일자리 문제)

○ **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 출범 후 한국관계 전망' 조사**(국내기업 327개사 대상, 22/4/21)
- 한일 협력분야에서 '**청년 취업 등 인적교류 활성화**'(19.0%)를 2순위로 꼽음 (1순위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

○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국 공통의 이슈**
- 양국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 청년 노동시장 이슈는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가 인재부족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이슈 해결**이 필요

○ 한일 노동시장 비교, 한일의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韓청년실업률, 日기업구인난), 한국인재의 일본취업현황, 현재활용되고 있는 인재교류 플랫폼의 한계(일본특화 정보체계 부족, K-move통한 취업의 한계, 다수의 일본 IT취업 지원기관) 등 소개

○ **양국 경제계 협업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 기업 수요, 인재 공급 관련 **전체 정보가 한 자리에 모여 한일 양국의 청년인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계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
- **한국 경제계/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계 및 일본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일본 기업의 인재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정보의 gateway 역할 수행**
- ICT 기술 발전 및 해외 취업 유인책의 감소를 고려한 새로운 인재 교류 플랫폼 모색
  *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을 매개로 한, 리모트근무 방식의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 (日) 우에다 가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

「한일관계에서 배우는 아메노모리 호슈 (에도시대의 외교관) 의 정신」

○ **조선과 일본의 조선통신사(1607년이후 약 200년간 12번(매회 500명)의 사절단이 방일,** 접대와 통역을 담당한 아메노모리 호슈의 조선통신사를 맞이한 **'성신외교(誠信外交)'**와 조선과의 외교에 마음가짐을 설득한 서적 '**교린제성(交隣提醒)**'을 소개

① 태어난 고향인 오미(시가현)에서 교토, 에도, 나가사키, 쓰시마, 부산을 무대로 학문과 외교, 교육에 평생을 바친 위대한 인물

② 아메노모리 호슈는 쓰시마 번에 조선외교를 담당한 당시의 국제인.
유학, 한문에 정통하여 조선어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나중에 일본에서 첫 조선어 사전을 완성하고 나아가 중국어를 이해하고 회화까지 가능하였음.
호슈는 **이웃나라와 친교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언어의 이해를 통한 모든 민족문화의 평등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음

③ 1990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일왕(천황)과의 궁중 만찬 인사에서 270년 전, 아메노모리 호슈는 성의와 신의를 신조로 삼았다고 소개하였는데, 일본측 관계자는 아메노모리 호슈는 누구인가라는 분위기였고, 아메노모리 호슈를 알리게 되었음

④ **조선통신사**
통신사라는 이름의 외교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있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부터 조선왕국 사자로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12번 방일한 정사, 부사 포함 총 450명에서 500명 규모의 대사절단으로 부산에서 대마도를 건너 큐슈 및 세토 내의 항구도시에서 숙박하면서 오사카에서 수도로 올라가 도카이도를 지나 에도에 도착하는 긴 여행이며 아메노모리 호슈는 1711년, 1719년의 통신에 2회 접대와 통역으로서 동행

- **온고지신** (温故知新 / find new knowiedge studying old matters)
- 현재 **한일관계는 정치레벨에서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의 좋은 우호 관계를 되돌아보고, 양국이 어른의 시각으로 미래지향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아메노모리 호슈의 정신으로부터 배우기를 기대**

□ (日) 사토 토시노부(佐藤 利宣)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업 실현을 향하여」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

○ 한국·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자국우선주의, 동맹강화) 및 환경문제(탈탄소) 등 외적 환경 변화(특히 **에너지 문제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큼**)

○ **에너지 분야의 한일 공통과제**

- 에너지원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음
-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 제조업 기반의 경제산업구조로 탄소배출량이 많음
- 경제 선진국으로서, CARBON NET ZERO에 대한 높은 책임감(부담)

○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일 공동정책·사업전략의 필요성**

- 높은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
- 한국은 63.5%, 일본은 69%의 발전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 에너지 자급률(2019년) : 한국 34위 17.7%, 일본 35위 12.1%

○ **한일 에너지 정책 비교**

한국		일본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2030 NDC(2018년 대비 CO2 40% 절감) - 그린뉴딜(20년 8월) - 2050 카본 뉴트럴 시나리오(21년 10월)	기본 방침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2030 NDC(2013년 대비 CO2 46%) - 녹색성장전략 발표(20년 12월) - 에너지기본계획안(21년 10월)
- 2030년까지 급진적으로 재생E 비율을 올리는 한편, 석탄·천연가스·원전의 비율을 낮춰 2050년에 탈탄소 실현. - 2050년에는 A·B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2021년 12월 한국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한국형 친환경 분류체계를 발표. 전력면에서 기존 정부 방침대로 원자력 발전은 배제.	전원 구성	- 2030년까지 원전과 재생E 비율을 서서히 올리면서, 석탄·천연가스·원전의 비율을 서서히 감소. - 2050년의 경우, 기술개발·정세변화를 토대로 7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화력의 경우는 수소·CCUS 상용화,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기본 전제.
-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	연료 수입	- 2018년 12월 기준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88%

○ **원자력 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국)

- **탈원전에서 다시 가동**시키는 새 정부
- 前대통령 시절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 착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
- 노후 원자력 발전의 계속 가동도 계획중
- 2023년 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절차 개시 예정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

(일본)

-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치체 등의 승인 취득의 장벽이 높은 상태**

○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 가능성과 사례**

- (가능성) **업스트림 공동 개발, 판매·수급조정·공동운항, 인프라 EPC에서의 협업**
- (사례) **인도네시아·LNG 공동 개발('15년부터 상업운전)**

○ **향후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 가능성**

- **한일 간 전력융통**

○ **에너지 공동 정책·사업에 필요 불가결한 것**

- 코스트 경쟁력, 규모의 경제 추구, 공동조달을 통한 대외교섭력 향상, 규격 표준화, 규제 완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흔들림없는 신뢰관계**(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분야)

V.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대표단 명단

한국측 대표단 명단

[서울 회의장]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團 長	金 KIM	銑 Yoon	(株)三養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
顧 問 (基調演說)	具 滋 烈 Christopher Koo		(株)LS 議長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副 團 長	柳 Jinroy	津 Ryu	豊山Group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孫 鳳 洛 SOHN Bong Rak		TCC STEEL CORP.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辛 東 彬 SHIN Dong Bin		LOTTE Group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尹 鍾 圭 YOON Jong Kyoo		KB Financial Group Inc.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李 仁 用 RHEE In Yong		三星電子(株)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李 輝 寧 LEE Howard		世亞製鋼(株)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田 重 先 CHON Jung Son		POSCO HOLDINGS 代表理事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徐 錫 崇 SEO Seok 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來 賓 (來賓祝辭)	安 德 根 AHN Duk Geun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涉本部長
來 賓	金 鍾 喆 KIM Jong Chul		産業通商資源部 通商協力局長
來 賓	權 泰 信 KWON Tae Shin		全國經濟人聯合會 副會長 前 駐経済協力開発機構(OECD)大韓民国代表部大使
來 賓	柳 明 桓 YU Myung Hwan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第35代 外交通商部 長官

特別參加 (主題發表)	李　京　相 LEE　Kyung　Sang	KAIST(韓國科學技術院) 教授
特別參加 (主題發表)	朴　基　兌 PARK　Ki　Tae	大韓商工會議所 地域人的資源開發Team 責任研究員
團　員	金　熙　勇 KIM　Hi　Yong	TYM Corporation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朴　南　淑 PARK　Nam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朴　仁　求 PARK　In　Gu	東遠Group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禹　基　洪 WOO　Kee　hong	大韓航空(株) 代表理事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相　俊 LEE　Sang　Joon	FINE INC. 代表理事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洙　喆 LEE　Soo　Chul	(株)GH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泳　官 LEE　Young　Kwan	Toray尖端素材(株)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崔　世　煥 CHOI　Se　Hwan	Canon Korea Inc. 代表理事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崔　雨　珏 CHOI　Woo　Kak	DAESUNG HI-TECH CO., LTD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丞　鎬 LEE　Seung　Ho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團　員	黃　昊　均 HWANG　Ho　Kyoon	光星企業(株) 顧問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團　員	姜　龍　德 KANG　Yong　Deok	大邱廣域市 主力産業誘致Team長
團　員	高　光　立 KO　Kwang　Rip	越南經濟研究阮 副院長
團　員	高　東　郁 KO　Dong　Uk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團　員	高　準　一 KO　Jun　Il	(株)KSH International 課長
團　員	高　彰　培 KO　Chang　Bae	(株)KSH International 代表

團　員	具　東　林 KU　Dong　Lim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部長
團　員	權　拮　煦 KWON　Gil　Hu	NIBLE CO., LTD. CEO
團　員	權　寧　定 KWON　Yeung　Jeung	KOMAR 代表理事
團　員	奇　秉　泰 KEE　Byung　Tae	Hikari情報(株) 會長
團　員	金　江　熙 KIM　Kang　Hee	(株)東和ENTEC 會長
團　員	金　度　亨 KIM　Do　Hyung	Aid Green Co, Ltd 代表理事
團　員	金　東　宣 KIM　Dong　Sun	AASE 社長
團　員	金　聲　鐘 KIM　Sung　Jong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副支店長
團　員	金　寶　羅 KIM　Bo　Ra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部長
團　員	金　俸　萬 KIM　Bong　Man	全國經濟人聯合會 國際本部長
團　員	金　勝　勳 KIM　Seung　Hoon	DENSO KOREA 副社長
團　員	金　永　根 KIM　Young　Geun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團　員	金　玉　卿 KIM　Ok　Kyung	Super Light Case Ltd. 代表理事
團　員	金　堯　大 KIM　Yo　Dae	金·張 法律事務所 會計士
團　員	金　容　塡 KIM　Yong　Jin	NEW GREEN HITECH CORP. 常務理事
團　員	金　旭　基 KIM　Wook　Ki	LOTTE Group 首席
團　員	金　鍾　瑞 KIM　Jong　Seo	Hanwha TotalEnergies Petrochemical 代表理事 社長
團　員	金　潤　希 KIM　Yoon　Hee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團　員	金　志　哲 KIM　Ji　Chul	Samho Green Investment, Inc. Team長
團　員	金　昌　淵 KIM　Chang　Yun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專門委員
團　員	金　泰　佑 KIM　Tae　Woo	KOREA INDUSTRY 4.0 ASSOCIATION Team長
團　員	金　賢　日 KIM　Hyun　Yel	殷珉洋行 代表理事
團　員	柳　楽　太　郎 Nagira　Taro	Mynavi KOREA Corporation　代表理事
團　員	閔　焌　晢 MIN　Joon　Seok	UNIBLE CO.,LTD. 技術顧問
團　員	朴　均　洙 PARK　Gun　Su	Yachal Inc 副社長
團　員	朴　相　奎 PARK　Sang　Kyu	(株)地球熱融合技術 代表理事
團　員	朴　相　鐵 PARK　Sang　Chul	韓國工學大學敎 敎授
團　員	朴　善　美 PARK　Sun　Mi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運營委員長
團　員	朴　永　道 PARK　Young　Do	大韓商工會議所 地域人的資源開發Team長
團　員	朴　寅　東 PARK　In　Dong	金·張 法律事務所 辯護士
團　員	朴　宰　永 PARK　Jae　Young	全國經濟人聯合會 責任研究員
團　員	朴　鐘　喆 PARK　Jong　Chul	Unitech Korea Co.,Ltd 理事
團　員	朴　　俊 PARK　　Jun	大韓商工會議所 亞洲通商室長
團　員	裵　ユ　람 BAE　Geu　Ram	大邱慶北経済自由区域庁 主務官
團　員	邊　煐　壎 BYUN　Young　Hoon	金·張 法律事務所 辯護士
團　員	卞　鍾　泳 BYUN　Jong　Young	KOREA INDUSTRY 4.0 ASSOCIATION 事務局長

團　員	司　空　穆 SAKONG　Mok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團　員	徐　永　錫 SEO　Young　Seuk	BOK創業投資 總括Manager
團　員	徐　禎　培 SEO　Jeong　Bae	(株)三養社 常務
團　員	徐　正　解 SEO　Joung　Hae	慶北大學校 教授
團　員	宋　錫　燦 SONG　Suk　Chan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常任顧問
團　員	宋　抒　炫 SONG　Seo　Hyeon	大邱廣域市 主務官
團　員	宋　淳　坤 SONG　Sun　Gon	IRIS KOREA 理事
團　員	篠　原　弘　俊 Sinohara　Hirotoshi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首席部門長
團　員	申　京　美 SHIN　Kyung　Mi	Support For You 代表
團　員	申　京　秀 SHIN　Kyung　Soo	B&D Enterprise Ltd 副會長
團　員	沈　載　和 SHIM　Jae　Hwa	Mynavi KOREA Corporation　課長
團　員	安　鍾　潤 ANN　Jong　Youn	企業革新CENTER 首席專門委員
團　員	梁　承　範 HENRY　YANG	承進國際 代表
團　員	嚴　致　成 EOM　Chi　Sung	韓國business金融 專務理事
團　員	吳　載　鎬 OH　Jai　Ho	Nano C&W Co. Ltd. 代表
團　員	吳　泰　憲 OH　Tae　Heon	慶熙Cyber大學校 教授
團　員	若　井　修　二 WAKAI　Shuji	韓國日研(株) 代表理事社長
團　員	柳　承　辰 YU　Seung　Jin	TAPS International Co.,Ltd 常務

團	員	尹 明 圭 YOON Myung Kyu	前 Bystronic co. LTD 社長
團	員	李 德 根 LEE Deok Keun	東國大 大學院 技術創業學科 兼任教授
團	員	李 東 卓 LEE Dong Tak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事務總長
團	員	李 鳳 杰 LEE Bong Geol	(社)韓國貿易協會 Team長
團	員	李 富 哲 LEE Bu Cheal	CHAM SIN CO., LTD 代表理事
團	員	李 昔 廷 LEE Suk Jeong	MH Power Systems Korea 本部長
團	員	李 承 律 LEE Sung Rul	東北亞共同體文化材團
團	員	李 承 雨 LEE Seung Woo	koveca holdings(株) 代表理事
團	員	石 垣 良 憲 ISHIGAKI Yoshinori	DENSO KOREA 常務
團	員	李 良 九 LEE Yang Goo	東北亞共同體文化材團 常任代表
團	員	李 英 淑 LEE Young Sook	Super Light Case Ltd. 理事
團	員	李 龍 燮 LEE Yong Seop	亞太經濟研究阮 副院長
團	員	李 章 範 LEE Jang Bum	中小企業振興研究會 會長
團	員	李 在 謹 LEE Jae Keun	MOLD PLAZA COMPANY 代表
團	員	李 宰 秀 LEE Jae Soo	全國經濟人聯合會 Team長
團	員	李 俊 雨 LEE Jun Woo	Zeobuilder Co.,Ltd. 理事
團	員	李 地 平 LEE Ji Pyeong	韓國外國語大學校 特任講義教授
團	員	林 아 름 LIM A Reum	大韓商工會議所 課長

團　員	林　幸　根 LIM　Haeng　Eeun	HK Chem交易(株) 代表理事
團　員	張　星　均 JANG　Sung　Gyun	Support For You 室長
團　員	張　珠　妃 JANG　Joo　Bi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對外協力委員長
團　員	鄭　求　鉉 JUNG　Ku　Hyun	J Campus 代表
團　員	鄭　나　나 JUNG　Na　Na	Mynavi KOREA Corporation　副社長
團　員	鄭　珉　浩 JUNG　Min　Ho	(社)韓國貿易協會 代理
團　員	鄭　善　泳 JUNG　Sun　Young	GM KOREA 次長
團　員	鄭　載　勳 JUNG　Jae　Hun	DONGA SOCIO HOLDINGS 代表理事
團　員	鄭　埈　明 CHUNG　June　Myong	金·張 法律事務所 顧問
團　員	鄭　泰　承 CHUNG　Tae　Seung	大成産業(株) 經營顧問
團　員	趙　在　珉 CHO　Jae　Min	三星電子(株) 課長
團　員	陳　官　煇 JIN　Kwan　Hwi	(株)京德産業 代表理事
團　員	蔡　承　默 CHAE　Seung　Mook	E&B Consulting 首席Consultant
團　員	崔　珉　碩 CHOI　Min　Suk	(株)韓永SEMICON 室長
團　員	崔　承　均 CHOI　Seung　Kyun	俊山貿易 代表
團　員	昴　星 HOSHI　Subaru	三鎬貿易(株) 代表理事
團　員	洪　起　正 HONG　ky　Jeo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指導委員
團　員	洪　鉉　豪 HONG　Hyeon　Ho	大韓製糖(株) 常務

Observer	朴 貞 美 PARK Jung Mi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課長
Observer	金 相 然 KIM Sang Yeon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Observer	文 盛 鏞 MOON Seoung Young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事 務 局	張 震 旭 CHANG Jin Wook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 務 局	劉 崇 勳 YOO Sung Hu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 務 局	林 炫 廷 LIM Hyun Jung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先任研究員
事 務 局	趙 德 卯 CHO Duck My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事 務 局	金 正 鎬 KIM Jung H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徐 光 賢 SUH Kwang Hyun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李 裕 卿 LEE You Kyong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李 慧 仁 LEE Hye In	(社)韓日經濟協會 研究員

[도쿄 회의장]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來　賓 (來賓祝辭)	姜　昌　一 KANG　Chang　Il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特命全權大使
團　員	李　碩　雨 LEE　Suk　Woo	(株)大韓航空 日本地域本部 本部長 駐日韓国企業連合会 會長
團　員	康　敬　瓚 KANG　Kyung　Chan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事務局長
團　員	姜　柱　溶 KANG　Joo　Yong	ASIANA AIRLINES INC. 日本地域本部 本部長
團　員	金　勁　勳 KIM　Kyung　Hoon	三逸会計法人 會計士
團　員	金　德　吉 KIM　Duk　Kil	金田事務所(株) 代表理事
團　員	金　和　男 KIM　Hwa　Nam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團　員	柳　廷　和 RYU　Jung　Hwa	Atsumi & Sakai 辯護士
團　員	松　井　理　奈 MATSUI　RINA	AMOREPACIFIC　Japan CO., LTD. 代表理事
團　員	文　祥　源 MOON　Sang　Won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支店長
團　員	朴　剛　杓 PARK　Kang　Pyo	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 支部長
團　員	朴　泰　根 PARK　Tae　Keun	LS ELECTRIC Japan(株) 代表理事
團　員	尹　柱 YOON　Joo	Hanwha Q CELLS Japan CO., LTD. 代表理事
團　員	李　順　炯 LEE　Sun　Hyeong	LS AUTOMOTIVE JAPAN CORP. 代表理事
團　員	鄭　然　薰 CHUNG　Yun　Hoon	(株)三養社 東京支店 副支店長
團　員	趙　成　允 CHO　Seong　Yoon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會長
團　員	崔　起　佑 CHOI　Gi　Woo	HMM Japan(株) 代表理事社長

團　員	崔　昌　燮 CHOI　Chang　Sub	LG Display Japan Co., Ltd. 代表理事
團　員	黄　鍾　吉 HWANG　Jong　Kil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副會長
團　員	黄　眞　吾 HWANG　Jin　O	Samsung Electronics Japan Co., Ltd 部長
observer	孔　炯　植 KONG　Hyung　sik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韓國文化院 院長
observer	金　玟　澈 KIM　Min　Cheol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経済公使
observer	徐　가　람 SEO　Ka　Ram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商務官
observer	金　琮　洛 KIM　Jong　Lak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商務官補
observer	尹　昭　熙 YUN　So　hee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專門官

일본측 대표단 명단

第54回 日 韓 経 済 人 会 議

THE 54th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2022.5.30　TOKYO, JAPAN / SEOUL, KOREA

≪東京会場≫

（敬称略・順不同）

団　長	佐々木　幹夫 SASAKI　MIKIO	(一社)日韓経済協会　会長
副団長 発表者	上田　勝弘 UEDA　KATSU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大垣精工㈱　取締役会長
副団長 基調講演	岡　素之 OKA　MOTOYU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住友商事㈱　特別顧問
副団長	古賀　信行 KOGA　NOBUYU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名誉顧問
副団長	井水　治博 IMIZU　HARU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社長
副団長	池田　正己 IKEDA　MASA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ホテルオークラ東京　取締役会長
副団長	小路　明善 KOJI　AKIYOSH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取締役会長兼取締役会議長
副団長	村山　良 MURAYAMA　RY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東レ㈱　顧問
副団長	岩田　圭一 IWATA　KEIICHI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副会長 住友化学㈱　代表取締役社長
副団長	黒石　邦典 KUROISHI　KUNINORI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理事 丸紅㈱　顧問
来　賓	岩田　和親 IWATA　KAZUCHIKA	経済産業大臣政務官
来　賓	額賀　福志郎 NUKAGA　FUKUSHIRO	衆議院議員　日韓議員連盟会長
団　員	藤野　正博 FUJINO　MASAHIRO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秘書室　シニアマネージャー
団　員	森口　幸彦 MORIGUCHI　YUKIHIKO	大垣精工㈱　取締役営業部長
団　員	青木　智則 AOKI　TOMONORI	(公社)関西経済連合会　国際部　参与

団　員	石　井　　靖　幸 ISHII　YASUYUKI	(公社)経済同友会　執行役
団　員	山　崎　　洋 YAMAZAKI　YO	住友化学㈱　総務部　主席部員
団　員	飯　塚　　秀　之 IITSUKA　HIDEYUKI	住友商事㈱　グローバル業務部　部長代理
団　員	米　田　　高　幸 KOMEDA　TAKAYUKI	住友商事㈱　グローバル業務部　課長代理
団　員	光　畑　　雄　介 MITSUHATA　YUSUKE	トヨタ自動車㈱ 東アジア・オセアニア部　韓国・モンゴルグループ長
団　員	杉　浦　　伸　明 SUGIURA　NOBUAKI	豊田通商㈱　渉外部　国際渉外室　部長補
団　員	野　村　　良　寿 NOMURA　YOSHIHISA	(一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　上席主幹
団　員	古　賀　　きらら KOGA　KIRARA	(一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
団　員	西　谷　　和　雄 NISHITANI　KAZUO	日本商工会議所　理事　国際部長
団　員	西　澤　　正　純 NISHIZAWA　MASAZUM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課長
団　員	矢　田　　久　俊 YADA　HISATOSH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主査
団　員	山　本　　大　介 YAMAMOTO　DAISUKE	(一社)日本貿易会　政策業務第三グループ長兼調査グループ長
団　員	小野村　　拓　志 ONOMURA　HIROSHI	(独)日本貿易振興機構　理事
団　員	日　向　　裕　弥 HINATA　HIROMI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部　海外地域戦略主幹（北東アジア）
団　員	方　　越 HO　ETSU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部　企画課　海外地域戦略班
団　員	田　倉　　三　葵 TAKURA　MIZUKI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　経営企画部　次長
団　員	須　崎　　宜　浩 SUZAKI　NORIHIRO	㈱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統括本部　産業政策本部　本部長
団　員	齊　藤　　裕　子 SAITO　YUKO	㈱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統括本部　産業政策本部　国際渉外部　部長代理
団　員	小　島　　正　寛 KOJIMA　MASAHIRO	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 経済交流部長
団　員	杠　　俊　彦 YUZURIHA　TOSHIHIKO	丸紅㈱　地域総括部　中国・東アジア課長
団　員	トン　　シン Tong　Xin	三井物産㈱ 経営企画部　グローバル業務室　海外業務コーディネーター
団　員	篠　原　　徹　也 SHINOHARA　TETSUYA	三菱商事㈱　執行役員　地域戦略部長

団　　員	池　田　　敦 IKEDA　ATSUSHI	三菱商事㈱　地域戦略部　東アジアチームリーダー
団　　員	橋　本　栄　治 HASHIMOTO　EIJI	三菱商事㈱　地域戦略部　東アジアチーム　次長
団　　員 コーディネーター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一社)日韓経済協会　顧問
特別参加	武　田　克　利 TAKEDA　KATSUTOSHI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日韓交流室長
特別参加	千々部　克　洋 CHICHIBU　KATSUHIRO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課長補佐
特別参加	山　村　真　人 YAMAMURA　MASATO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外交実務研究員
特別参加	藤　本　佳　隆 FUJIMOTO　YOSHITAKA	経済産業省　岩田 和親 経済産業大臣政務官　秘書官
特別参加	出　雲　　晃 IZUMO　AKIRA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
特別参加	川　上　　隆 KAWAKAMI　TAKASHI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補佐
特別参加	石　丸　策　基 ISHIMARU　KAZUKI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係長
特別参加	竹之内　　翼 TAKENOUCHI　TSUBASA	経済産業省
特別参加	箱　田　哲　也 HAKODA　TETSUYA	朝日新聞社　論説委員
特別参加	玄　　東　實 HYUN　DONG SHIL	観光経済新聞社　社長室長
特別参加	宮　内　孝　久 MIYAUCHI　TAKAHISA	神田外語大学　学長
特別参加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名誉会長
特別参加	石　田　　賢 ISHIDA　MASARU	国士舘大学　経営学部　客員教授
特別参加	小　関　克　也 KOSEKI　KATSUYA	静岡県東京事務所　次長
特別参加	向　山　英　彦 MUKOYAMA　HIDEHIKO	中央大学　非常勤講師
特別参加	中　山　喜　昭 NAKAYAMA　YOSHIAKI	東レ㈱　総務・コミュニケーション部門　主幹
特別参加	井　上　　渉 INOUE　WATARU	㈱日刊工業新聞社　執行役員　編集局長
特別参加	峯　岸　　博 MINEGISHI　HIROSHI	日本経済新聞社　編集委員兼論説委員
特別参加	安　倍　　誠 ABE　MAKOTO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新領域研究センター長

特別参加	森　山　　朋　之 MORIYAMA　TOMOYUKI	東日本旅客鉄道㈱ 国際事業本部　国際ビジネス商務グループ　担当部長
特別参加	藤　吉　　優　行 FUJIYOSHI　YUKO	ヒューマンリンク㈱　みらい人事研究所　シニアアセッサー
特別参加	渡　邊　　康　弘 WATANABE　YASUHIRO	フジテレビジョン　報道局経済部
特別参加	澤　田　　克　己 SAWADA　KATSUMI	毎日新聞社　論説委員
特別参加	成　田　　洋　助 NARITA　YOSUKE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評議員
特別参加	山　﨑　　弘 YAMAZAKI　HIROSHI	元(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特別参加	佐々木　　颯 SASAKI　HAYATO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慶應義塾大学　経済学部3年
特別参加	藤　田　　大　地 FUJITA　TAICHI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立教大学　社会学部1年
事務局	内　田　　敏　明 UCHIDA　TOSHIAKI	(一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事務局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前　田　　一　郎 MAEDA　IC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金　　侑　貞 KIM　YUJUNG	(一社)日韓経済協会　担当部長　青少年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梶　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一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事務局	伊　沢　　雅　子 ISAWA　MASAKO	(一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
事務局	千吉良　　泰　三 CHIGIRA　TAIZ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第54回 日 韓 経 済 人 会 議

THE 54th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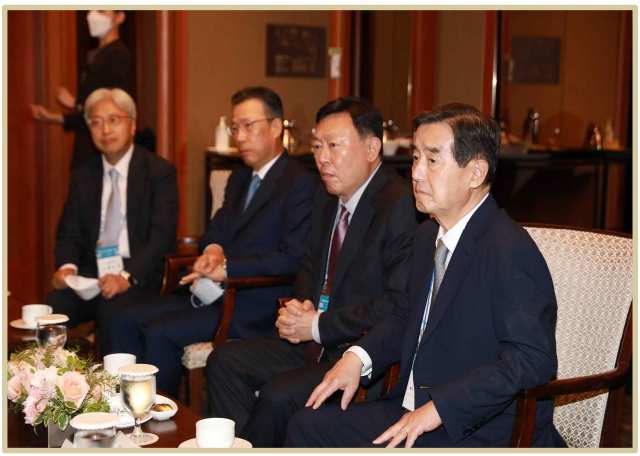
2022.5.30　TOKYO, JAPAN /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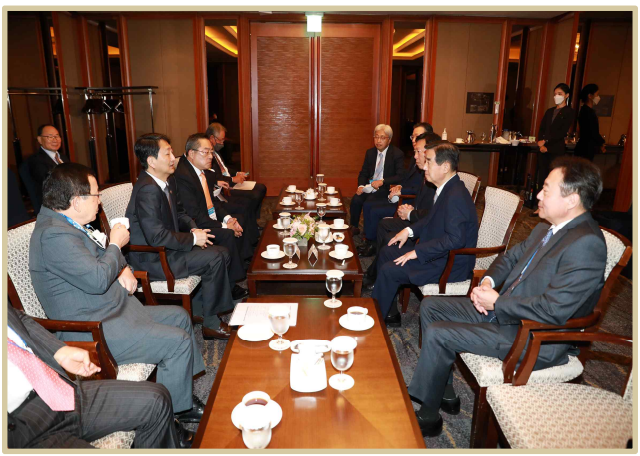
≪ソウル会場≫

（敬称略・順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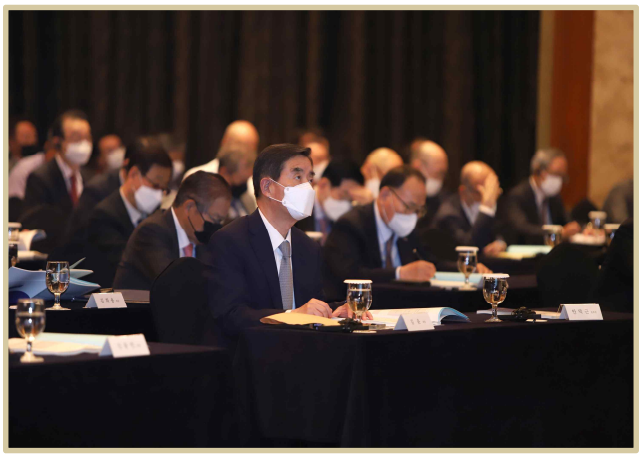
団　員 発表者	佐　藤　　利　宣 SATO　TOSHINOBU	ＳＥＯＵＬ　ＪＡＰＡＮ　ＣＬＵＢ 理事長 韓国三菱商事㈱　代表理事社長
団　員	孫　　胤　喆 SOHN　YUNCHUL	㈱エイジェックコリア　代表理事　社長
団　員	藤　井　　亨 FUJII　TORU	ＭＯＬ（ＫＯＲＥＡ）Ｃｏ．，Ｌｔｄ．代表理事社長
団　員	長谷川　浩　二 HASEGAWA　KOJI	韓国伊藤忠㈱　代表理事　社長
団　員	大　橋　乃　介 OHASHI　DAISUKE	韓国住友商事㈱　代表理事 社長
団　員	小　峰　研　一 OMINE　KENICHI	韓国双日㈱　代表理事　社長
団　員	片　岡　智　彦 KATAOKA　TOMOHIKO	韓国東レ㈱　副代表
団　員	杉　浦　正　也 SUGIURA　MASAYA	韓国豊田通商㈱　理事
団　員	大　谷　　徹 OTANI　TORU	㈱韓国日立　代表理事　社長
団　員	横　田　知　久 YOKOTA　TOMOHISA	韓国富士フイルムビジネスイノベーション㈱　代表取締役社長
団　員	井　口　和　容 IGUCHI　KAZUHIRO	韓国三井物産㈱　代表理事　社長
団　員	村　上　成　郎 MURAKAMI　NARUO	韓国三井物産㈱　経営企画本部　本部長
団　員	李　　在　鎔 LEE　JAEYONG	韓国三井物産㈱　業務管理本部　本部長
団　員	柳　内　澄　人 YAGIUCHI　SUMITO	韓国三菱商事㈱　天然ガス本部長
団　員	森　原　康　夫 MORIHARA　YASUO	韓国三菱商事㈱　コーポレート本部　経営企画室長
団　員	濱　嵜　康　宏 HAMASAKI　YASUHIRO	サムジョン会計法人　コンシューマーマーケット1部　マネジャー

団　員	黄　仁雨 HWANG　INWOO	東友ファインケム㈱　副会長
団　員	秋吉　芳朗 AKIYOSHI　YOSHIRO	東友ファインケム㈱　代表理事　副社長
団　員	山本　和則 YAMAMOTO　KAZUNORI	日本航空㈱　韓国支店　支店長
団　員	大里　徹平 OSATO　TEPPEI	日本商工会議所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　員	三根　伸太郎 MINE　SHINTARO	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　員	船曳　智幸 FUNABIKI　TOMOYUKI	野村ファイナンシャルインベストメント韓国　代表理事社長
団　員	金　哲永 KIM　CHEOLYOUNG	ＢＣＫコンサルティンググループ　代表取締役社長
団　員	正富　竜一 MASATOMI　RYUICHI	丸紅韓国会社　社長
団　員	中川　一也 NAKAGAWA　KAZUYA	㈱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　支店長
団　員	谷川　輝記 TANIGAWA　TERUKI	㈱三井住友銀行　ソウル支店　韓国代表　支店長
団　員	藤本　淳 FUJIMOTO　JUN	㈱三菱ＵＦＪ銀行　ソウル支店　支店長
団　員	中村　伸吉 NAKAMURA　SHINKICHI	㈱三菱ＵＦＪ銀行　ソウル支店　支店長(6/3就任予定)
団　員	吉武　耕 YOSHITAKE　KO	ロッテ・ジェーティービー㈱　インバウンド部門長
団　員	秋山　正己 AKIYAMA　MASAKI	ＮＸ韓国㈱　代表理事社長
特別参加	熊谷　直樹 KUMAGAI　NAOK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次席公使
特別参加	浪岡　大介 NAMIOKA　DAISUKE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経済公使
特別参加	高根　和正 TAKANE　KAZUMASA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参事官
特別参加	大西　英司 ONISHI　EIJ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参事官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韓日 經濟連繫의 새로운 스테이지」
韓日！經濟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한일！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글로벌 제조 슈퍼 허브 국가의 위상이 침몰한다!
China Risk Drivers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韓日 經濟連繫의 새로운 스테이지」
韓日! 經濟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韓日 經濟連繫의 새로운 스테이지」
韓日! 經濟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韓日 經濟連繫의 새로운 스테이지」
韓日! 經濟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韓日 經濟連繫의 새로운 스테이지」
閉会式
폐회식
第54回 韓日經濟人會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54回 韓日經
54회 한일경제

Ⅵ. 의 사 록

1. 개회식

사회

(일)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한)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일) 사회 : 잠시 후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 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 회의장에서 진행을 돕게 될 한국 한일경제협회 서석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회의를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이 제54회째가 됩니다. 오늘 개회사를 통해서도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몇 번 그 역사의 무게감에 대해서 강조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임석해 주신 정부 대표, 귀하신 시간 내주신 회장단, 오늘 기조연설과 발표를 해 주신 모든 분들, 뒤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훌륭한 회의장을 잘 꾸며 주신 롯데호텔의 임직원분들, 뒤에서 저희들 통역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김혜원, 이정남 훌륭하신 두 분의 통역께 오늘 진행에 앞서서 먼저 깊은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곧 회의 진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일) 사회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에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 발표할 때를 제외하고, 기념 촬영을 할 때를 제외하고 회의를 하실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을 포함해 서로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시는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있는 스텝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 호텔 오쿠라도쿄와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통신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진행상의 이유로 인해서 회의가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에 통역 수신기가 있습니다. 채널 1번이 일본어, 채널 2번이 한국어입니다. 사전에 언어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또는 알람이 울리는 시계 등 소리가 나는 기기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는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사회 : 저는 오늘 이 회의의 사회를 맡게 된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우치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일한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53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로 제5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쿄와 서울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민간 교류의 등불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다행이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 회의는 반나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개최합니다만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뜻 깊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회 한일, 일한경제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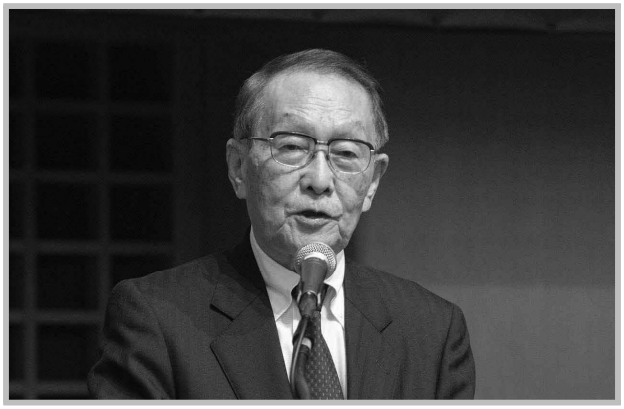
먼저 단장과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회의장, 서울 회의장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불리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단장인 일반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입니다. 다음은 중의원 의원이자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 측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님이십니다. 일본 측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것은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의 특별고문을 맡고 계신 일한경제협회의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회의장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 단장을 맡고 계신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내빈으로 축사를 해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이십니다. 끝으로 한국 측 기조강연을 해주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LS그룹 의장이십니다.

양국 단장님으로부터 개회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단장인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회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주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강창일 대사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 측 참석자 여러분, 일본국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이와타 가즈치카 정무관님,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 그리고 일본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개회식에서 일본 측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 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4년 후인 1969년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5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민간교류의 등불을 지키자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해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은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53회 회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도쿄와 서울 행사장을 합해서 모두 200분 이상의 경제인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강력한 파트너십 아래 서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번 제54회 회의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 여겨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신 하야시 외무대신과 박진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더 이상의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지난달 일본에 파견되신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기시다 총리님에게 우려 사항의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는 뜻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경제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책협의대표단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인회의 등의 장을 통해서 교류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함께 협력하면서 제3국에서의 협력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 테마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입니다. 코로나도 드디어 진정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한일 간 이동의 제약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는 에너지와 식량 등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물류와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탄소 사회의 전환 등 한일 양국은 많은 공통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번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경제인 스스로 행동을 일으키자'는 키워드가 제시되고 강조되었습니다.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연결고리, 유대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한일, 일한경제협회는 활동의 원점인 세 가지 기둥인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의 내실화 및 확대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류도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도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활동에 변함없는 이해와 관심,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오후에만 국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서로 알찬 결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사사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단장님이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행사장의 김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님,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 양국의 내빈과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경제계의 선배들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끌어오신 경제인회의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절박한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의 기조연설자이신 무역협회의 구자열 회장님과 일본 측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께서 발제해 주시고 양국의 발표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진솔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양국 새 정부의 등장과 우호 분위기 조성도 전환의 계기이겠지만, 당장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위기는 한일의 경제 연계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최근에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앙등 또 예전 같지 않은 한일 양국의 경제지표들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한 탈산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서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오랜 갈등으로 남아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가고 양국 정치, 외교 분야의 지원이 밑바

탕이 되어서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난 몇 년간의 복합적인 정치, 외교 갈등이 큰 교훈이 되어서 시간 낭비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고,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야겠습니다. 거창한 구호 또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인 인적 교류 또 지방 상생의 지혜 공유, 상호보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게 되기에 현역에 있는 우리 경제인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몇 년 후 한일경제인회의는 환갑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보다 성숙해진 관계를 크게 축하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엽니다. 감사합니다.

(2) 내빈인사

(일) 사회: 김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와타 가즈치카(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경제산업대신정무관 이와타 가즈치카입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도쿄와 서울의 회의장에 계시는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들어서 전세계 경제는 코로나 변이종의 대대적인 유행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혼란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제재,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 장기화 등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미중 대립의 심화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구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인권에 대한 배려 등도 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일 양국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중국과 아세안 등의 공급망 의존, 기후변화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알셉(RCEP)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알셉은 15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무역권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경제 연계 협정을 맺는 것이 됩니다. 발효 직후부터 한일 양국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화학품 등 소재를 중심으로 알셉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의한 이용, 활용 촉진과 체결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규칙 준수를 위해서 서로 연계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기반 위에 한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해서 한일 양국의 경제 발전에 공헌해왔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도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해마다 개최되었고, 한일 경제인 간의 신뢰 관계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경제 관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업에서 연계 협조를 심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큰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건전한 한일 관계는 다양한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안타깝게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이 이상 사태가 악화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근거하여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좋은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새로운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 관계의 경제 분야의 연결고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양국의 가일층의 경제 발전을 초래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어 양국 관계의 개선, 관계 발전이 되도록 한일 경제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알차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건승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이와타 정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입니다. 먼저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사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일본에서 참석하고 계신 이와타 경제대신정무관님,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님께도 온라인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기업 간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50년 넘게 양국 경제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써 3년째 온라인 연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생생히 느껴집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꼭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노력으로 양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주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기업인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1965년 수교 이후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주요 산업에서 유기적 분업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로 양국 간의 교류와 소통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매년 서로 10억 달러 내외로 투자하는 등 여전히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어 양국 간 교류가 정상화된다면 앞으로 더욱 큰 경제협력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동반자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장밋빛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올해 2월 발효한 RCEP과, 지난주 공식 논의를 출범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내 통상질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태지역 주요 통상협의체인 CPTPP 가입도 추진 중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내 주요 경제협의체 참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IPEF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통상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 정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이제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 밸류체인에 더해 에너지·원자재로까지 확대된 공급망의 불안정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성장의 모멘텀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나,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난 4월 경산성은 일본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매년 17조엔 이상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한국 또한 탄소중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못지않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만큼 양국이 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분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탄소중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보니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고, 정부는 후방에서 기업을 든든히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는 하나의 팀, ONE TEAM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는 양국이 당면 도전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화두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한일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한일재단, 일한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재무대신 등 정부 요직을 담당하셨던 중의원 의원,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방금 소개받은 중의원 의원 그리고 일한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후쿠시로입니다. 경제인회의가 54회를 맞이해서 한 번도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개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측 사사키 회장님 그리고 한국 측 김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한국대사님이신 강창일 대사님께서도 와 계시는데요. 강창일 대사님도 이 전까지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측 회장님을 맡고 계셨습니다.

저희 한일, 일한 의원연맹의 의원들은 정부 혹은 민

간 차원에서 어떠한 사태가 빚어져도 반드시 수면 하에서 파이프를 통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속내를 다 털어놓고 대화를 이어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본 측 국회의원 여러분 각각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확실하게 한일 관계를 앞으로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의 일본 측은 약 8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에 처음에는 20분 예정이었던 시간을 30분 연장해주셔서 무려 5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와 함께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저는 기시다 총리와 말씀을 나누어서 의견을 여쭙고, 기시다 총리님의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님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 그 첫 번째는 역시 1965년 한일조약 그리고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이 되어 왔는데요. 이 틀을 지키면서 한일 양국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안전보장 측면에서 국제적인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도 한국도 에너지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경제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힘으로 현황을 변경할 나라들을 이대로 관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핵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둘러 쌓여 있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한일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미일,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확실하게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아시아의 지역 안정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계 각국의 평화와 안전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기시다 총리의 생각 그리고 저희 자민당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양국은 이웃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 국민 간의 교류를 확실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일본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전후 가장 냉랭한 시기이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2차대전 이후 가장 좋았던 1998년에 오부치-김대중 대통령 사이에서 맺은 양국 파트너십 선언에 입각한 관계로 되돌려 보자, 최고로 좋았던 관계까지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저희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생각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애가 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강력한 협력 관계와 같은 부분이 앞으로 개선을 바라보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을 정치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5월 중에 서로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 PCR 검사 등 여러 가

지 장애물을 제거해서 6월에는 하네다공항과 김포공항 간에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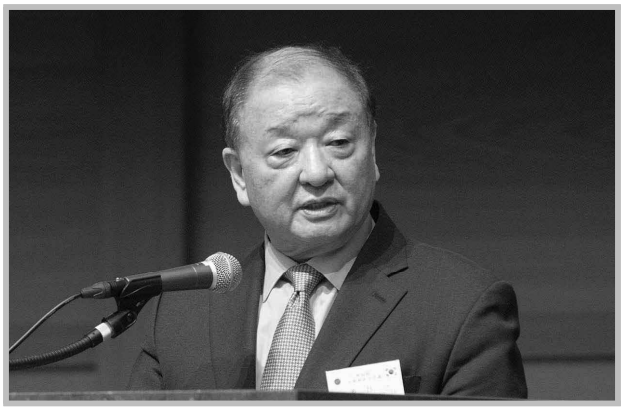
일본 측도 기시다 총리 이하 정부 그리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서 다시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1천만 명이라는 인적 교류를 자랑하고 있는 관계인데, 계속 그런 흐름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도 앞을 바라보면서 안전 보장과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계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일 양국에 서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계속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측 내빈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경제인 여러분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성대신정무관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님, 한국 측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도쿄와 서울에서 함께하고 계신 양국 경제인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처음 개최된 이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인들은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으로 양국 관계를 잇는 돈독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아울러 한일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1965년 수교 당시에 2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은 이제 약 4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8위, 세계 5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런 경제협력은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공통된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온 기업인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러분들 사이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나아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세계 경제 발전을 선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의 정치관계가 경제인들의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 왔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인들의 협력, 우호관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경제협력 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님께서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한일 관계가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인해서 더욱더 관계 개선과 우호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일한경제협회와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념촬영

서울회의장

도쿄회의장

(일) 사회 : 강창일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하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무대에서 내려가신 후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세 분은 그냥 계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의자만 치워주시고 저희들이 일본과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합치기 때문에 몇 분 귀빈을 저희들이 먼저 모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김윤 회장님, 구자열 회장님, 안덕근 본부장님 계셔주시고요. 저희들이 회장단 먼저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신동빈 회장님, 류진 회장님 그다음 이인용 사장님, 이휘령 부회장님, 손봉락 회장님, 전중선 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측과 나중에 사진을 합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회장단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측도 준비가 되면 사진을 찍겠습니다만 저희들 먼저 카메라 준비되셨으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김윤 회장님 그 앞에 명패를 조금 넣으신 다음에 찍으시겠어요.

(일) 사회 : 단장님, 내빈 여러분 무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 일단 저 뒤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측이 사진 촬영이 끝나면 단 아래로 회장단을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죠.

(일) 사회 : 무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 화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대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찍겠습니다.

(한) 사회 : 미소를 지어주시면 좋은 사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 한국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기자분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어 주세요. 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사회 : 단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과 사진 촬영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장을 하실 예정입니다.

(일) 사회 : 내빈 여러분께서 지금 퇴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퇴장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사회: 무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 : 제54회 경제인회의가 일본 측이 주최할 순번입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부터 먼저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측 기조연설자이신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죠.

2. 기조강연

(일) 사회 : 지금 무대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조 강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 측부터 스미토모상사 주식회사 특별고문님이신 오카 모토유키 고문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카 고문님은 국내외에서 업계 재편이 진행되는 큰 변혁, 혁신 속에서 상사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계속 계셨습니다. 제3국의 한일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일한경제협회에서도 12년 동안 부회장님을 맡아주셨고 한일 간의 민간 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실적과 경험과 함께 한일의 향후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카 모토유키(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스미토모상사의 오카입니다. 오늘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기조강연이라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과 작년 회의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면 회의가 성사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965년에 제1회 이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본 회의를 올해도 지속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은 백신의 개발과 접종은 진행되고 있지만 종식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확진되었던 분들께 진심으로 문안드리며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은 5월 10일 제20대 한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저희 경제계도 환영 인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의 세계정세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2월 하순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에서 회복하려던 전 세계에 새로운 제약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잇따라 전쟁 참화에 휘말리고 앞날이 창창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한시라도 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3월에는 ICBM 시험 발사도 실시했습니다.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경제를 보면 에너지 업계의 공급력 부족과 또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에서 반전되면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해 원자재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따른 물류 대란과 인력 부족, 재정 지출 제약, 미국을 비롯하여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금융 긴축 정책이 시작되어 경기 후퇴의 위험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동향과 세계적 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계는 일치단결하여 VUCA 시대라고 불리우는 '앞날이 불투명하며 미래의 예측이 어렵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여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서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한일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면 안타깝게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작년 9월까지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친근감에 관해서도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60%를 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 느끼는 인상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12.3%에 불과해 서로 호감도와 친근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감염 확산 때문에 양국 간의 인적 왕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5월 들어 국경제한조치 완화가 발표되면서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대면 교류 본격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취임하신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 그리고 양국 간의 셔틀 외교 재개 방침을 제시하셨고 양국 간의 교류가 재개되고 가속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의 역사적 경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양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한 역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언급하셨지만 1998년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좋은 예입니다.

이는 과거의 양국 관계를 총괄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래의 양국 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결의를 양국이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과거의 페이지를 닫고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1992년 EU 탄생 등 냉전 후에 신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동아시아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 등 안전 보장에 대한 지역 협력의 의식이 고조된 시대였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IMF 위기가 일어나서 한일 모두 경제난 타개가 공통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뒷받침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현안 사항도 안고 있는 가운데 양 정상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이 선언의 큰 열쇠가 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경제협력과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 연계, 문화 개방,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의 교류가 촉진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 10월,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외무성 공동 주최로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선언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한 일본의 정부 지도자께서 '당시 나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이후의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면 선언이 실행되어서 참 다행이었다'며 감개무량한 듯이 말씀하셨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 탄생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전보다 더욱 리더십을 발휘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 ESG와 SDGs의 추진이 세계적 조류인 가운데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이야말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발표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09년 한국은행이 장수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및 지역마다 시장 환경 등의 차이는 있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가 200년 이상 된 기업은 세계에 41개국 중에서 5,586개사가 있는데 그 중 56%인 3,146개사가 일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200년의 역사 동안에는 자연재해와 역병, 전쟁, 경제 대불황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온 장수 기업에는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 이념에 공리공익을 내걸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종업원과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 네 번째는 거래처와의 관계가 공존, 공용의 파트너십 관계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점, 체력이라는 것은 재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업원의 결속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 기업이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 경영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리공익과 공존공용 정신은 한일 기업 간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때로는 상호 보완하면서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탄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협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실적을 쌓아왔으며, 일한경제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1년 말 현재, 24년 동안 대상국가 42개국에서 누계 121건, 투자액으로 27조 6천억엔에 이릅니다. 이러한 협력과 연계는 제3국의 활성화 및 성장으로도 이어지므로 사회적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3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과제 해결에 공헌을 함으로써 세계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영향도 있어 프로젝트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이러한 활동을 더욱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가 필수 불가결하며 양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적 교류에 일찍부터 주력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청소년 교류 한국 대학생 방일단'부터 시작해서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 '한일 학생 미래회의' 등을 개최하며 교류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는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데 역시 얼굴을 맞대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에 버금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 활동에 더해 어린 시절부터 상대국에게 '좋다', '친근감을 느낀다', '쉽게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년쯤 전의 일인데요. 제가 영업을 했었을 때 한국의 어느 거래처 분을 알게 되어서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참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오카씨 한일 양국 간에는 일본에 의한 한국 합병이라는 역사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나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좀 복잡한 심정입니다"라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의 심정을 말해준 것이어서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한국분들에게 역사, 과거사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역사 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국에서 각각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일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일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 존중 등 보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17세기의 조선통신사라는 당시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왕조 사이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외교 사절이 있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총 12차례 일본을 방문했으며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쓰시마 그리고 에도까지 약 1,000km의 여정을 총 500명의 사절단이 방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일본이지만 조선국과는 외교 루트가 있어서 조선통신사 왕래 시에는 일본 각 지역과 폭넓은 교류를 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바로 평화외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동 수단을 고려하면 분명 큰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되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은 통신사를 성공시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점, 협력해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 사업을 지속하려는 서로의 의지와 책임감 등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통신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의 마음입니다.

올해 3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교류는 애초부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한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이러한 정신으로 교류를 쌓으며 상대를 더욱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기반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일 관계에는 다양한 역사가 있고 수많은 현안과

과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양국만의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양국은 아시아에서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도 발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국정책협의대표단이 방일을 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시고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내비치셨습니다. 또한 대표단과 일본 경제계 회담 시에는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열의를 느꼈습니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시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가운데 양국 정상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정신을 재확인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단과의 회담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정상이 이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기반 위에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 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의견 교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배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현역 경제계 리더 간에는 탄탄한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본심을 터놓고 한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믿습니다.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밝고 설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며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현역 경제계 리더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미래를 향해 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이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사회: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에 기조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의장에 있는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상근부회장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서울회의장에 서석숭입니다. 한국 측 기조연설에서 귀한 말씀 주실 분은 LS그룹 의장이신 구자열 회장이십니다. 일본과의 인연이 매우 깊으신 최고경영자이시고 저희 한일경제협회 당연직 고문이시죠. 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당연직 이사이시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단체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자산 규모도 크고 역사가 오래된 회원 수가 너무 많은 막강한 한국무역협회를 맡고 계십니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을 단상에 모십니다. 큰 박수로 기조연설자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열(具滋烈)
한국무역협회 회장 · (주)LS 의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입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정부 대표와 한일 경제인 여러분. 일한경제협회와 한일경제협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일 양국의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경제계의 가교로서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일경제협회와 경제협회 김윤

회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양국 협회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양국 간 경제인 교류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 아래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인회의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일 경제인 교류의 전통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일 경제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양국 간 경제 교류를 이끌고 계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과 김윤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는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화계에서도 일본을 대표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브로커'에서 송강호, 배두나 등 한국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해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배우 송강호 씨가 이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것 역시 한일 양국 문화교류의 값진 성과로 전 세계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도 머지않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과 통상은 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가 싶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등으로 양국 경제인들은 또다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안개 속에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기 속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게 되는 것은 지금은 양국이 서로 손을 더 굳게 잡아주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원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면 제 손으로 가꾼 정원에 오랜 시간 머물며 생각을 가다듬거나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원에는 웅장한 거목도 있었지만 가끔은 땅바닥에 붙어 인생을 보내는 이끼에서 깨우침을 얻기도 합니다.

정원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때로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접붙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나무 가지를 쳐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지만 정원을 가꾸다 보면 오히려 수목들이 이러한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분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위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정원에 머무는 동안 한일 관계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국의 역사가 신뢰와 협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동시에 간직한 정원이라면 그 속의 나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며 정원 속의 나무 한그루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를 이롭게 할 동북아발 훈풍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화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이 앞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와 우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통계를 보면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국 역사를 되짚어 보면 백제와 통일신라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가 왕래하였던 200년 동안 양국이 상업과 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평화관계를 지속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봄 이원경 전 주일대사는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앙금을 우선 씻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역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의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는 국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한일 우호관계로 화답을 하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시기를 즈음해서 한국 경제는 1988년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일본 역시 같은 해 글로벌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33개나 순위에 오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간 양국 간 교역은 21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6.4%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두 나라가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메리카 이외의 대륙에서 개최한 첫 번째 월드컵입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양국 경제의 가시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 '아시아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가수로 보아가 있습니다. 보아는 당시 일본에서 첫 번째 앨범이 음반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욘사마, 지우히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양국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좁혔습니다.

이러한 우호관계에 힘입어 2002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큰 폭의 신장세를 지속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IMF 금융지원과 IT 붐으로 기업들의 경영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한일 간 기업 협력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한일 관계 역시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삼성전자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글로벌 마케팅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IMF 이후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두드러진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없었다면 아마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오늘과 같은 성장을 이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제조 공정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일본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산업 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향후 5G망 구축으로 새로운 잠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경우 이와 관련된 한국산 부품 교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사이에 산업 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기술 협력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발효된 알셉(RCEP)은 한일 간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교역 확대, 기업의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동반하는 양국 사이의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발효된 이번 협정을 통해 이제 양국은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한일 교류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열망이 수차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의 소개로 알려진 '도한놀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도한놀이(渡韓ごっこ, 도칸곳코)'는 '건널 도(渡)와 한국의 한(韓), '흉내내는 놀이(ごっこ)'를 합친 단어입니다. 한국 여행의 갈증을 느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과자와 컵라면 소주 등을 소비하면서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즐기는 문화를 일컫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과 문화 교류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일본 마을을 본떠서 만든 동두천의 '니지모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요즘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식 건물에서 료칸을 즐기고 일본의 다양한 음식과 소품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양국을 오가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현재 일본에서는 4차 한류의 붐으로 불릴 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은 2년 전에 비해 대략 6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K팝 인기도 계속 높아져서 한국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공동으로 아이돌을 육성하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및 게임 등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16년 만에 출시된 포켓몬 빵이 인기를 얻으면서 캐릭터 스티커가 연일 품절되는 등 뉴스와 미디어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캐릭터 산업의 강점을 지닌 일본은 최근 굿즈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완구사인 반다이 남코사는 창립 4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의 BTS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마고치 타이니탄〈Tiny Tan〉'을 발매했습니다.

한일 간 문화산업 교류는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동일 제품을 사용할 정도로 생활상을 공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최초로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한 이후 2004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간에 중단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개방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 및 문화교류 이외에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기업인입니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은 이미 글로벌 탑 클래스의 플레이어로 인정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업인들은 때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지만 한편으로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계적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인들도 세계적 전환기를 맞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한일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무비자 방문 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한일 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양국 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각각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게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소 중립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향후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한일 양국 간에 전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을 통해서 동북아 역내에서 전력을 값싸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업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과거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기에는 경제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민간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다도(茶道)에는 오래 전부터 써온 '이치고이치에(いちごいち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뿐인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애 단 한 번뿐인 인연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한국이 IMF 시대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외화 보유를 위해 애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 당시 일본은 한국에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종료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금액이 점차 늘어나서 2008년 300억 달러,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단순히 경쟁상대로만 바라보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도 역시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도호쿠 지방 지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재난지원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지원하였고 119 구조대원도 수백 명을 파견하여 일본을 적극 도왔습니다. 한국인의 온정에 감동한 간 나오토 전 총리는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격려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은 이러한 협력의 사례들을

통해 '이치고이치에'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양국 사이에 축적된 협력과 지원에 좋은 기억들을 되살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상생과 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흔이 반세기에 걸쳐 축적해 온 양국 관계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은 양국 간 교류의 역사와 이를 통해 다져진 의의와 신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 주 지방선거가 있고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권이 양국 경제계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즐겨 인용했던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더디지만 한국과 일본이 멀리 그리고 함께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인들은 물론이고 양국의 국민들이 신뢰와 우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회: 기조연설에 귀한 말씀 주신 구자열 회장님은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한일 경제인 간의 선의의 경쟁과 필연적 협력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 주신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양측의 기조연설자 두 분께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자열 회장님. 이로써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일본 측에 넘깁니다. 우치다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경제인회의를 개최를 하기 전에 사전에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했던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체어맨을 맡으셨던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님이 업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부회장, 이케다 마사키 주식회사 호텔 오쿠라도쿄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케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일본측)

이케다 마사키(池田 正己)
㈜호텔오쿠라도쿄 회장

방금 소개받은 이케다 마사키입니다. 오늘은 아소 회장님(체어맨)을 대신하여 제가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 3월에 있었던 신산업무역회의에 이어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을 만나 뵙고 오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산업무역회의 개최부터 오늘까지 세계는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한일 양국에 관해서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또 그 보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견하신 한국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경제계와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기시다 총리의 특사로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취임식 참석과 또 새 대통령 예방을 하셨습니다. 아직 양국 간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 3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제22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전체에서 한국의 새 정부 시작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양국 왕래 및 교류의 가일층 활성화를 위한 기대에 찬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의 전체 주제는 오늘 경제인 회의와 동일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아가는 한일 경제를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의 아베 마코토 센터장님이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주제로 2000년대 이후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와 그 원인, 최근 코로나 사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2020년대 이후를 향한 한일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일 관계를 무역 관계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점유율 비중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철강 무역과 전자재료, 제조장치 분야에 주목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개라는 점에서는 수평무역 활성화와 소비재 무역 진전, 서비스 무역 확대, 인재의 활발한 왕래 등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션 1의 질의응답에서는 한국 측의 '한일 기업 간 협력 성과와 향후의 방향성: 한일, 일한재단 30주년을 맞이하여'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먼저 우리 경제계가 좀 더 잘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얽히고 설킨 한일 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의견이 나왔고요. 또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발언하신 한국의 새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매우 흥미를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노력, 대응'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스미토모상사 주식회사의 오카다 타쿠야 사장님께서 '탄소 중립 시대의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 수소'라는 주제로 한일 공통과제로써 첫째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주요 대책에 대한 대응과 변화, 둘째 낮은 수준의 에너지 자급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사회를 함께 실현하는 협업' 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렴한 제조, 대량으로 제조 및 수송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 수소 활용뿐만 아니라 생산과 저장, 수송 분야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규모의 경제, 기술 네트워크 확보, 상용화 필요 등 한일 수소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비슷하여 이러한 공동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회(H2코리아)와 일본의 수소밸류체인 추진협의회(JH2A)와 같은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수소단체의 연계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2세션의 질의응답에서는 에너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한일이 이른바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을 설계할 수 있을지, 양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틀을 생각할 수 있을지 여부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큰 열쇠, 에너지 문제의 큰 과제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의 한일 인적 교류 현황과 협력 사례 및 미래를 향한 준비, 방향성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기술이라는 것은 설비 투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깃드는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것, 사람과 사람의 교류는 국가를 초월해 더욱 중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에 기대를 걸며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기업 간의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양국 국민 그리고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인적 교류에 대해 “일본의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 우리들은 한국의 문화 등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왜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나라를 좋아하는 분위기를 가능한 한 소중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계에 대해 “우리는 현역 경제 리더로서 기도를 하거나 바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는 차세대를 위해 현역 세대가 남겨줄 수 있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은 서로 일치한다고 강하게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 열정이 크다고 느꼈지만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과제도 많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응한다는 역지사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새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가고 싶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바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져가기 위한 회의라고 느꼈다”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22회 신산업무역회의는 무역, 수소와 같은 에너지 문제,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적 교류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지만 지난 5월 17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귀국자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 숙박 시설에서 대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그전에 3일이었는데 이제는 격리, 대기 없음으로 변경되었고, 다음 달 10일부터는 98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이 조건부로 재개되면서 전 세계와의 연결이 눈에 띄게 점점 좋아지고 인적 교류도 코로나 이전 혹은 그 이상으로 활발해질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인회의에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 이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인데요. 여러분 좌석에 커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또 회장 안은 금연입니다. 흡연하실 분은 흡연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은 너무 밀집 안 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 밖에 소독액 등이 있으므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는 15분 후인 3시 40분,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5분 전인 3시 35분까지는 자리에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2~3분 전에는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신동빈 회장님 감사합니다. 잠깐 커피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FFEE BREAK

(한) 사회 : 복도에 계신 우리 청중석에 모셔야 될 회원사 여러분들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곧 본회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복도에 계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 시간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 저희들 한국 측 안내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국 측 사무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모셔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측 회의장 우치다 전무님 30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에 남아 계신 우리 일회원사 회장단 안 계신지 다시 한 번 사무국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 사회 : 준비가 되셨나요.

(한) 사회 : 기다려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신 회장단 몇 분이 금방 착석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우치다 전무님께 서울 회의장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초만 기다려 주시죠.

(일) 사회 : 네 알겠습니다.

(한) 사회 : 그러면 저희들 서울회의장의 착석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본 회의장의 우치다 전무이사님께 본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탁합니다.

(일) 사회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다시 한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의 기조강연에서 구자열 회장님께서 한일 문화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한국의 배우인 송강호씨가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하고 주연을 맡은 '브로커'라는 영화는 예전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감독을 맡은 한국 영화라고 합니다.

수상식에서 송강호 배우는 위대한 예술가인 고레에다 감독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레에다 감독은 내 영화에 나온 배우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한일 문화 교류를 그야말로 상징하는 기쁜 소식이 경제인회의 전날에 날아든 점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에 마치 낭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전체회의

(일) 사회: 그럼 지금부터 전체 회의로서 본회의 개최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디네이터와 발표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당초 NRI사회정보시스템의 다카다 노부아키 코디네이터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여러분들께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제 무릎

에 부상이 있으셔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저의 전임인 전무이사를 맡으셨던 고레나가 카즈오 전 전무이사님께 대역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 오가키정공주식회사의 우에다 카츠히로 회장님이십니다. 우에다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오가키정공은 금형 사업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한국의 기술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등 양국의 경제 교류에 열심히 대응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에도시대 중기에 한일 양국 외교에 기여한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를 주제로 한일 교류의 방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일본 측 두 번째 발표자는 서울회장에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의 사토 토시노부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에는 공통의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양국의 기업 간 연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국 측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경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중국과 탄소 중립과 같은 관점에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국 측 두 번째 발표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의 박기태 책임 연구원님이십니다. 작년도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이 무대에 오르셔서 양국 재계의 전체적인 협력을 그리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앞서 나중에 설명이 또 있겠지만 한 분당 15분 내에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고레나가 코디네이터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 인사 및 진행 설명

좌장 :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고문

좌장: 코디네이터를 맡게 된 고레나가입니다. 다카다 코디네이터가 지금 무릎에 부상이 있어서 그 대신에 저로써는 참 오랜만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분당 15분 발표입니다. 일본-한국, 일본-한국 순서로 네 분의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그리고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양국 모두 회의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주식회사 회장님께'한일관계에서 배우다.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에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우에다 카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주) 회장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오가키정공의 우에다입니다. 이름은 아마 잘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이름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은 에도 중기의 인물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연 중에서 스미토모상사의 오카님께서 아메노모리 호슈의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그 시절에 활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정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서 일한경제인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출석자 명부를 제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멤버를 보면 중소기업은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과의 교류 학생 인턴십 또는 대기업 기술자를 수용해서 기술 지도를 그 때 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오가키정공의 우에다를 불러오라"고 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지금부터 30몇 년 전이겠네요. 그때 제가 대표 인원에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의 대학생은 총 몇 백 명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기술자 등이 저희 회사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의 강사로 7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자신을 갖고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하는 에도시대 대마도의 외교관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을 하셨고, 그때 천황폐하(일왕)의 궁중 만찬회에서 "한일 간에는 에도시대에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며 "그 때 활약했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신문기사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 에도시대의 외교관으로는 '아라이 하쿠세키'가 매우 유명합니다. 아라이 하쿠세키와 아메노모리 호슈는 같이 유학을 공부했던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라이 하쿠세키는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수뇌부로서 중앙에서 활약을 했고, 아메노모리 호슈는 그 스승이 대마도에 가서 활약을 하라고 해서 대마도(쓰시마)에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그의 활약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궁중 만찬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아메노모리 호슈가 도대체 누구냐며 다들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수면 하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아는데 아메노모리 호슈는 모르겠는데 큰일이라며 그 때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에도시대의 이른바 외교관, 조선통신사의 통역으로서, 당시 12차례 조선통신사가 왕래했는데 그 때 2번 통역을 담당해서 에도까지 안

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지방 관료였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마도가 부산과의 무역 창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언어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산에 가서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부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당시에 조선어를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사전'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념관에 남아있습니다. 가나다라부터 시작하는 조선어 사전이 일본에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었고, 나가사키에 가서는 중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에도시대에는 일본의 국제인으로서 지방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담당해서 밀 무역 등 일본과 한국의 외교협상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하는 당시 조선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태어난 곳은 시가현이었고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집을 나와서 '오규 소라이'라고 하는 유학자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때 동기가 아라이 하쿠세키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라이 하쿠세키는 에도의 남고, 자네는 대마도에 가라"는 스승의 요청에 의해서 대마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훌륭한 점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때 '교린제성(交隣提醒)'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조선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얼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풍속이나 역사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야 교류할 수 있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교린제성(交隣提醒)'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성심외교' 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자신이 만든 그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초기까지 이 책은 사실상 교과서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새 다 잊혀지게 된 것이죠. 이른바 역사에서 잊혀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역시 메이지유신, 메이지시대 초기에 일본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당시에 한반도, 동아시아 또 중국 문제 등의 현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평화로운 사상들은 그냥 덮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메노모리 호슈는 잊혀진 외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책도 출판이 되었는데요.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심외교는 '거짓이 없는 성심에 바탕을 둔 외교'를 주장했고, 오늘날까지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현의 시골에는 아메노모리 호슈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료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인구 5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부산의 초등학교와 자매 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방문하면 온 마을이 대환영을 합니다. 한국어로 안내판을 준비를 하고, 한국 아이들은 일본 유카타를 입고 수박 깨기를 즐기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2년간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일 간의 '풀뿌리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일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냉각되고 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황폐하(일왕)도 "수세기에 걸쳐서 귀국에 대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교류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양국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이제야말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것이죠. 아메노모리 호슈

가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양국관계는 역시 이웃 국가이고, 같은 동양인입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같은 동양인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의를 가져가야 한다' 소의를 놔두고 대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의 레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평행선으로 쭉 가면 결코 교류하거나 섞일 일은 없고, 마주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조선통신사를 다시 검증한다는 신문사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일본의 역사학자와 한국의 역사학자가 조선통신사를 검증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점을 서로 지적하기 마련입니다. 결코 그냥 마주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만 이야기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양쪽 다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는 결론이 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대도로 간다, 역사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독일과 프랑스를 봤을 때에도 이웃 국가는 늘 역사 속에 분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한국에 지인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또 인간적인 교류도 아무 문제없이 30수년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메노모리 호슈의 정신, 성심외교를 바탕으로 한일 간의 관계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짧은 시간이라 단순한 소개에 그쳤습니다만 제 발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우에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일본의 에도시대 중기,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에 걸쳐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창한 한국어로 한일 양국의 교류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에 있었던 성심외교, 상대국가의 역사, 언어, 관습, 인정 그리고 여러 가지 예의범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서 진심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까 양국 보고가 있었던 신산업무역회의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년도 훨씬 전에 아메노모리 호슈가 역설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탄을 금치 못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우에다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회의장에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의장에 계신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이경상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경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상(李京相)
KAIST 교수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흘 전에 한국에 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한국

을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은, 연설 때마다 계속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 전에 끝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에서 열린 2022년 회의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글로벌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경영상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2020년 5월 달에 팬데믹이 선언되자마자 바로 책을 냈었는데요. 그때 제가 8가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는 미래 변화 중에 1번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가 중국발 경제의 팬데믹이 또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의 폭이 계속 넓어져서 이제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영향, 팩터 중에 신냉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탄소 중립으로 오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중국과 소련을 자본주의의 하나의 전체적인 밸류체인 안에 넣으면서 선진국은 기획과 판매를 담당하고, 후진국에서는 생산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유럽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제 체제, 중국은 시장과 그에 관련된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편입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냉전 내 글로벌 공급망, 다시 말하면 제2차 냉전이라고도 하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기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국을 임의로 폐쇄하고 도시 봉쇄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차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까지는 값싸게 한 곳에서 몰아서 대량으로 저가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닛케이아시아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이제 원가보다는 안전하고 빠르며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이 해결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일단 시간 관계상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된 이래 시장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제조를 담당하는 비율이 28.7%로 일본의 4배, 한국의 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후에 팬데믹이 왔죠. 그로 인해서 국경을 임의로 폐쇄하고 그러다 보니 생산에 차질을 빚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이 정지되는 형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최근까지 상하이 등에서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기반을 다른 쪽으로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또 하나의 견제들과 합쳐서 국가 경기가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 부채율을 갖고 있고, 작년부터는 중국의 공기업들, 국가 기업들이 반도체 굴기에 차질을 받으면서 도산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큰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혐오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로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글로벌 제조 공장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시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제조 거점도 거기에 연관돼서 움직이게 되면 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전략적 대안으로써의 멕시코죠. 실질적으로 2020년 이후에 대멕시코 미국 투자는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물론 정치적인 부패와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중 압박을 위해서 쿼드 혹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IPEF 등 이런 체제의 정치적 대안으로 인도가 부상함에 따라 인도로 중요한 거점이 이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인도 시장을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축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적 대안으로써 아세안까지 세 곳을 예의주시하면서, 물론 아세안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1차 위험군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들이고, 이곳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험해지면서 중국 의존도, 수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제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입과 수출을 다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의 요소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죠. 한국은 요소수를 중국에서 97% 이상을 수입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 보니 한국의 대미지가 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중국이 한국의 미국 친화 정도에 따라서 보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지금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 위협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 기업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 2025'가 세계 최고의 제조업을 만들 것을 선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MERICS에서 중국이 '제조 2025'가 달성됐을 때 가장 위험한 국가들의 순위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맨 오른쪽 상단에 제일 위험한 것이 사우스 코리아 다시 말하면 한국이 제1 위험군에 있고, 제2 위험군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회 삼아서 중국에게 뒤져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제2위 국가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거의 8위에서 11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져 있는 분야에 대해 거꾸로 추격해야 할 부분은 추격하고, 차이를 벌릴 부분은 더 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 최대의 현안인 탄소 중립 문제입니다. 바로 작년 7월 14일날 EU에서 'Fit for 55' 다시 말하면 '2035년까지 55%의 탄소를 절감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농업 규제부터 시작해서 2035년이 되면 EU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대한민국도 바로 한 달 뒤에 탄소 중립법이 설정됐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가 배출 총량으로 보면 1위가 중국이고요, 탄소 배출 5위가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8위가 한국이죠. 그런데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도시로 비교해 보면 전 세계 1만 3천 개 도시 중에 서울이 1위, 도쿄가 9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규제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탄소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를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선형경제는 내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그것을 폐기시키면 되는, 다시 말하면 나는 폐기까지 책임이 없는 것을 선형경제라고 하는 반면에 순환경제는 제품을 만들 때부터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제조 방식, 이런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순환경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2022'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Everyday Sustainability' 다시 말하면 매일 지속 가능한 것에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자원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를 새로운 소재로 완전히 대체하고, 제품 파트 수도 줄이고, 재사용하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에코 패키징이라고 해서 제품 패킹 안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폴 등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 변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 자원 활용에 있어서 소재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르메스가 버섯을 이용하고, 이케아가 또 버섯을 이용하고, 사과로 구두를 만들고, 비닐을 대체하는 바나나 등 이런 것들이 소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다시 말하면 소재, 부품, 장비가 모두 살아나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 몇 없습니다. 그중에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화학, 소재 분야의 발전과 한국의 가공 분야의 발전 그리고 빠른 역동성을 가진 점들을 함께 합치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환 경제가 오면 저절로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까지의 엔진이 좋아야 되고 연비가 좋아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경쟁 공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좋아야 되고 AI가 좋아야 되고 데이터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새로운 경쟁 방식으로 이동되면서 그 산업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를 팔고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기름을 넣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밸류체인이 다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험은 3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줄게 되고, 주유소가 사라지고, 자동차 부품이 42%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비회사의 70%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태계로의 대전환, 다시 말하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새로운 형태로의 대이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Caterpilar)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재제조를 위해서 중장비를 다시 환원해서 재사용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 및 설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들은 이제 앞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대응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경영입니다. 저번 주에 끝난 다보스 포럼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 글로벌 밸류체인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다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러한 충격이 갑자기 오게 되면 기업들은 여기에 큰 대미지를 입거나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의 각각의 신호에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량의 결합, 서로 장점을 결합해서 이러한 난국을 빠르게 돌파해 나가는 협동력 역시 미래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시간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 이경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본 측 마이크 받아주시죠

좌장 : 이경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밸류체인이 국경을 넘어서 연결되고 글로벌 가치 연쇄가 구축되어 있지만 한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요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요.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중증화가 예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미중 경제 마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그 후의 국제 간의 새로운 틀이라든지 중국의 동향 등 예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코멘트 중에 “변화는 위기이며 동시에 도전,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새로운 스테이지에 정말 잘 맞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경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의장에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인 한국미쓰비시상사의 사토 토시노부 대표이사님께서 ‘한일 공동의 에너지 정책,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사토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토 토시노부 (佐藤 利宣)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한국미쓰비시상사 사토입니다. 올 2월부터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에너지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유지, 확대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모두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같은 세계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치, 외교, 경

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한일 양국의 협업의 필요성에 주목을 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불확실성을 둘러싼 국제 환경과 국제적인 문제가 모두 한일 양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한일 양국의 공통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을 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에 대해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은 약 75.8% 한국도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양국 모두 아직 전체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이 예를 들어, 독일은 32%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20%대 수준이라는 점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비용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일 양국이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앞서 설명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2019년 시점에서 일본은 세계 5위, 한국은 7위,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은 11톤, 일본은 8톤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모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넷제로(Net Zero)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작년 11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일본 역시 2013년 대비 46%를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원 구성이 가운데 있는 표인데요. 한일 양국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그와 동시에 화석연료,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화력의 비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양국 모두 205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15% 정도 도입을 하겠다는 점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은 거의 없어지고,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을 전체 70~90% 커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양국에서 모두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앞으로의 동향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윤 대통령은 원전의 유지,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미래의 전원 구성 예상은 탈원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바뀜으로써 이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전성의 검증과 함께 잇단 이상 기온, 이상 기상 현상 그리고 지진의 영향으로 가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형 원자로로 불리고 있는 SMR의 동향에도 앞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양국의 에너지 사업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두 곳이 화석연료 수입을 기반으로 근대적인 제조업을 발전시켰고 매우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탈탄소화 흐름에 있어서 양국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유사성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땐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쉽지 않은 일이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 년 단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 이행 과정에서 양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열화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경제 부담을 낮추면서 조기에 에너지 트랜지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대규모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각각의 국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한일 양국이 하나가 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이 같은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이 놓여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각으로 나타낸 것은 그린수소 즉 암모니아의 주요 생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전 세계의 지도의 색상이 수소 생산 비용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주황색이 진할수록 생산 비용이 싸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생산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린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연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혹은 수소 생산의 자원이 되는 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생산 거점에 가까울수록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다 파란색 지역에 있고요.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순수 수입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암모니아 대규모 서플라이체인의 공동 구축입니다. 최근에 뉴스와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된 암모니아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화석연료 대체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수소 에너지로 전환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기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거액의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대체 연료로써 암모니아가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모니아의 특성은 연소를 해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석탄과의 혼소라든지 암모니아 자체의 전소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설비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수송,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수소의 캐리어 매체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의 수소 공급망 구축의 하나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에서는 이미 정부, 민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공동의 암모니아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생산,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 그리고 특수 대형 선박의 건조와 공동 운항 그리고 나아가서는 허브 터미널의 공동 운영 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암모니아를 연소용 연료로 본격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즉 연료 암모니아에 대한 접근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매우 드문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이용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직 회의적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한다면 공급망 구축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에너지로의 공급망 구축의 하나의 사례로서 LNG, 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 연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LNG인데요.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일본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처음으로 LNG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LNG가 도입이 됐었고, 한일 양국에서 전 세계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잠들어 있는 천연가스 일부를 액화해서 전용선으로 해외로 운반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목소리가 매우 높았고 '생산하고 운반해서 사용한다'는 일련의 공급망을 수요 확대에 맞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구축을 해온 것이 바로 한일 양국의 LNG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한 에너지 공동 사업의 상징적인 구축 사업, 선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LNG 도입 프로세스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암모니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한일 양국이 에너지 공동 사업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사업인 동기-세로노 사업입니다. 미쓰비시상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2011년에 투자를 결정했고 2015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해 일본과 한국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이 회사의 실적도 매우 호조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는 단기간에 투자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모니아 운반에는 전용선과 LPG 선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VLGC 최대 선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재량은 4만 5천 톤 정도이고, 장기적으로 물류량이 확대될 경우 좀 더 큰 대형 특수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국 기술과 경쟁력을 합쳐서 개발, 건조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호 윈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보관에 있어서도 특수 탱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건설에도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남동부 혹은 일본의 큐슈 인근에 거대한 수용 터미널, 기지를 건설하고 대형 외래선박에서 소형 국내용 선박을 적재하는 허브 기지로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국 간을 오가는 국제 송전선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송전망은 국경을 넘어서 전력을 주고받는 송전선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유럽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ENTSO-E'라는 대규모 송전선 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미 35개국이 참여를 했고 가맹국 전력 수요의 평균 십수%를 이 송전선망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송전선망 구축 시의 장점은 경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전력의 국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간 수급 밸런스 균형에 기여를 하고 블랙아웃이나 이상 기후 현상이 등 긴급 시에 백업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요인이 많은 자연 에너지의 편차를 흡수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연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국제 송전선의 송전 사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요. 양국의 기후와 전력 피크는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기온이나 일조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격차 해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대규모 자연 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국제 송전선 설치는 자연 에너지의 약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이나 나아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망라한 아시아 국제 송전망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전제로 한 이와 같은 발전용 프로젝트를 제일 포석으로 깔고, 우선은 한일 양국에 의한 국제 송전선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국가 간을 넘나드는 에너지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장점이 매우 명확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성격상 국가의 안전 보장의 근간에 관련된 것이기에 쉽게 다른 나라와 협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위기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은 다시 한번 에너지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에너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은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관련 규제 완화와 통일,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 민·관·학에 의한 연계 강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의 영속적인 구축 여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저탄소 사회로 도전한다는 공통 과제를 통해 새로운 스테이지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서울재팬클럽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창립 이후 현재 회원 수는 법인 350개사, 개인 1,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JC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서 건의 등을 하고 있고요. 한일 경제인의 긴밀한 연계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 감사합니다.

좌장 : 네 사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희망찬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내용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동기-세로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13년에 한일, 일한 양국의 경제협회가 주최를 해서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현지 시찰 방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갔습니다만 제3국에 있어서의 합작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와 특징에는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제조업과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수요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탄소 중립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 의식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양국의 공통점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양국의 연계는 가능성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된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의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표해 주신 사토 사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서울 회의장에 계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역인적자원개발팀에 박기태 책임연구원님께서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한일 청년인재플랫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기태 책임연구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의 박기태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한일 경제인 회의와 같이 뜻 깊고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일 청년 간에 어떻게 서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그 인적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발전 및 관계까지 더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짧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배경부터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까지 이렇게 총 7가지의 순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시면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같은 한일 양국의 문제를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1일,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전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 대표사들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을 주문하였으며,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국의 정치 이슈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롭게 경제계 그리고 국가 간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슈들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살펴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국 공통의 이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동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노동시장 내 미스 매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스 매치라는 것이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기업이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스 매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한일 양국이 살펴보기에는 수요와 공급, 인재를 찾는 기업과 인재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둘 사이에 미스매치 현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이자 비공통 이슈인 청년 노동시장의 이슈는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관에 맡겨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계가 협력을 통해서 우수 인재가 인재 부족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한국의 우수 인재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일 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4세 실업률을 살펴보시면 양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래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 4%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 변동으로 2015년 이후에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양국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인재의 공급과 기업의 수요 사이에 격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구인배수와 유효구인배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인재 100명당 약 58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인재 100명당 약 39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인재 100명당 162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습니다. 한국은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현실, 일본은 사람을 구하는 기업은 정말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는, 특히 일할 청년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청년 인재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양국에 크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청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25~29세,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25~29세 청년 실업률, 한국 사이드를 보시면 최근 20대 후반 청년 실업률은 OECD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활황 그리고 인구 변동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들의 제공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해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청년 실업률만 살펴보신다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일본의 약 2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 알 수 있는 청년 실업률 상승 속도와 평균 배율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속도로 청년 실업률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평균 배율 즉 일반적인 15~64세의 실업률에 비해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약 2.8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1.7배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건강하고, 한국의 남아 있는 인력들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일본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업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기의 취업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도 저해되고, 궁극적으로는 생애 주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청년 확장 실업률이라는 정부에서 제공하긴 하지만 비공식적인 실업률입니다. 즉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통계에 넣어서 분석한 결과인데, 청년층의 약 1/4이 준실업 상태입니다.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준실업 상태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청년들은 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경상 교수님께서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산업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ICT 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청년들은 또 하나의 기회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산업 트렌드 대응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ICT 인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양질의 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졸자 중에 ICT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노동시장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의 인력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8만 명을 계속해서 양성해서 노동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기존 경력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임금의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규 채용자들을 계속해서 입도선매하기 위해서 초봉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질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의 해외 취업 유인책이 감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본의 IT 산업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새로운 유인책을 발굴하는 방안들이 경제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경제가 활황이 되었고 엔저 중심으로 상품 수요 확대 및 수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익의 확대로 기업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인구구조 변동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쿄대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 안정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젊은 세대가 포진해 있는 ICT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빅테크, 빅데이터, 정보보안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엔지니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IT 전문인력 수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T 인재의 약 90%가 기존형 인재이고 최신기술 체계를 할 수 있는 AI와 IoT 관련 첨단 인재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졸업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IT 관련 인재 공급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30년 약 79만여 명의 IT 관련 인재가 부족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내에서도 IT 담당자가 증가함으로써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넘어서 일본 기업 역시 디지털 전환 분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IT 엔지니어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필요한 직종에서는 꾸준한 구인 수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일본의 유명한 HR 대기업인 Persol Career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분야의 유효구인배율은 약 5.53배입니다. 100명의 인재에 대해서 약 550명의 구인 수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만 있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부족한 일본 노동시장 현실에 한국 국적의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적 해외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이 취업하는 국가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한국에서 해외로 취업한 사람들의 약 36.2%가 일본에 취업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 증가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급 감소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만여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취업하는 일본 내 일자리 절반 정도는 ICT 분야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 취업자 중 약 65.7%가 IT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천 명씩 계속해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본의 ICT 분야 인재 수요에 더해서 한국 청년들의 우수한 ICT 기술, 어학 능력, 글로벌 지향 능력으로 인해서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배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족한 일자리 또 열악한 처우에 더해서 일본 노동시장의 유인요인이 할 수 있는 부족한 인재 그리고 전환 중인 ICT 산업과 결합이 된다면 한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본에서 함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K-MOVE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월드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해외 취업 연구, 인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특화 정보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실제로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CO-developer나 일본 IT 카페 등과 같은 민간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일본 IT 기업 지원 기관이 있을 텐데 그 취업 기관에는, 많은 경우에 대학에 있는 취업 기관은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 기관들은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기업 수요, 인재 공급 관련 정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일 양국 청년 인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력이 더욱더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계 및 일본 상공회의소 그리고 여러 기업 협회들과 함께 흩어져 있는 기업 정보, 기업의 인재 수요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경제계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국내외 그리고 일본 간에 서로 gateway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같은 기존에 구축된 온라인상의 활동들을 넘어서서 ICT 기술에 따른 온라인을 매개로 한 리모트 근무 방식 또한 시공간의 응축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인재 교류 플랫폼을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양국의 청년 인재를 교류함으로써 더 나은 양국의 관계 그리고 경제 발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박기태 책임연구원님. 작년에 최태원 회장님의 강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인적 교류 플랫폼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의 피크아웃 등을 통해서 인재 확보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졸업 시에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과제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서로 연대하면서 윈윈의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번에 경제인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한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조직인 한일재단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 측의 일한재단은 서울재팬클럽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자체는 목적이 아니지만 일본 기업의 자세라든지 일본 기업의 방식을 한국의 학생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연이 닿아서 결과적으로 인턴십을 경험한 한국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이번 제언이 하나가 되어서 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발표해 주신 박기태 책임연구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좌장 : 지금부터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양국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의견과 질문이 있다면 받고자 합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하게 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은 늘 그렇습니다만 3분 이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쿄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혹시 질문, 코멘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을 드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 노무라홀딩스의 코가 명예 고문님 어떠실까요. 갑자기 지명을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가 노부유키(古賀 信行)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노무라홀딩스주식회사 명예고문

지명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느낀 점이 소감 비슷한 것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미래 지향이라는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양국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역사 하나만 봤을 때에도 좀처럼 양국의 공감대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고 갭을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계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나온 것처럼 공통의 과제를 서로 좁혀가고 통일시켜가고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단계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재팬클럽의 사토 이사장님의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른바 에너지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박기태 책임연구원님의 '인재 플랫폼'을 상호가 활용해나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이끌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계에서는 정치계에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중매 역할은 정치인이 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 활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오카 부회장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양국이 교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실현하는데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좌장: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서로의 공동 과제를 발견하여 실현해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젊은 인재의 교류 이벤트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도레이주식회사의 무라야마 고문이 어떠신지요.

무라야마 료(村山 良)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도레이(주) 고문

네.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라야마입니다. 저도 박기태 책임연구원님의 젊은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양국의 단기적인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특히 젊은 청년들의 개인 교류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컬처가 젊은층에게 침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자열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 중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습니다.

최근에 도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라주쿠보다 한국 무드가 넘치는 신오쿠보에 젊은이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TV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의 바탕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대책이죠. 아까 박기태 책임연구원님이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인적 수요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정비를 함과 동시에 일한경제협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횟수를 더 확대해 나가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좀처럼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선 젊은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은 연수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용을 포함해서 양국의 청년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십 방법을 좀 더 찾아내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고, 이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 청년 인재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매우 따뜻하고 건설적인 제안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도쿄 행사장에 계시는 한국 측 경제인분들께도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대한항공주식회사 일본지역본부 이석우 상무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직으로서도 한일 민간경제교류, 민간교류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석우 상무님 괜찮으실까요.

이석우(李碩雨)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 본부장 /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 이석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일본 경제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인분들이 한국의 신 정권에 대해서 기대가 매우 크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최근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밝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는 경제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항공편인 김포-하네다 노선이 운항을 재개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 올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고레에다 감독의 '브로커'라는 영화가 다음 달에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뉴스가 많이 있지만 밝은 뉴스,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양국이 조금씩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의 인적 교류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약 5% 정도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인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얘기는 있었는데 노비자가 되거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인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이석우 상무님 감사합니다. 교류의 부활, 확대. 정말 양국이 원 팀으로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회의장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또는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회의장에 계신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부회장님. 한국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한) 사회: 일본 측 회의장에서 세 분 정도가 귀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 절약상 세 분 정도 여쭈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역지사지라는 말을 이영관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게 다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나왔던 부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수철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22년간 쭉 코디네이터를 역임해 오시면서 지금 경제인회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오셨거든요. 결례가 안된다면 이수철 회장님은 한 2~3분 정도, 오늘의 회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귀한 말씀 한번 청해도 될까요. 이수철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마이크를 이수철 회장님께.

이수철(李洙喆)
GH 홀딩스 회장

반갑습니다. 코레나가상 오랜간만에 뵈니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54회 한일경제인회의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시기임에도 54회를 쭉 끌어온 경제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분 중에서 특히 우에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메노모리 호슈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에다 회장님이 후대가 기억하는 제2의 아메노모리 호슈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고 또 기술 분야에 많은 노하우도 한국에 이전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도 양성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기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경상 교수님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언제 어떠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한일 관계가 더 밀접해지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토상의 말씀은 상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제가 30년 가까이 전에 후쿠오카에서 포럼이 있었을 때 일본이 세이칸 터널을 뚫어서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해저터널을 뚫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즘같이 물가가 폭등하고 자원을 가진 나라의 횡포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사토상이 말씀하신 특히 한일관계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태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이야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몇몇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취직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간다는 기분에 들떠서 일본에 가서 취직을 한 젊은 청년들이 몇 년을 있어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자기 꿈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물론 고용 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싶은 의욕도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의욕이) 떨어져서 "일본에 간 것을 후회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국적이나 인종차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기업인들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IT 인력들을 많이 데려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좀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일 관계는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력의 교류가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기업의 교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회: 아픈 지적도 있으셨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굉장히 많은 참석자가 계시는데요. 경제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분류가 어려우시나 저기 유명환 전 장관님 앉아 계십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고 계시는데, 전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셨고 모두가 잘 알다시피 외교부 장관 또 한일 포럼을 지금도 이끌어오시고 여러 한일 관계 모임의 최선두에 계십니다. 유명환 장관님 혹시 오늘 회의 보시면서 기조연설도 조금 전에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청해도 될까요.

유명환(柳明桓)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제35대 외교통상부 장관

간단히 두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협력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플라이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었다는 것과 에너지 문제 또 젊은이들의 취업, 이것이 한일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일 관계의 당위성에 있어서 안보적인 측면이 크게 강조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

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공동성명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한일 협력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내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까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회장님께서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심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성심 외교 성의와 신의죠. 그것을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신뢰라는 뜻이겠죠. 신뢰 외교. 한미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우호국가 즉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외교관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 일본말로 ‘고고로자시(こころざし､志)’라고 하나요. 이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새로 들어선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좋은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유명환 장관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일본 측 회의장에서 한국의 멤버로서 일본 현지에서 참가하고 계시는 한국기업연합회의 회원사를 대표해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의 도모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SJC 서울재팬클럽의 멤버 한 분에게 발언을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사토 사장님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SJC 회장단분들과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아주 잘 보이십니다. 미쓰이물산 이구치 사장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됩니까. 제가 아주 잘 보인다고 얘기한 것은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기 불빛이 우연히 위에 있어서.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치 가즈히로(井口和容)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사장

한국미쓰이물산의 이구치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뿐만이 아니라 지난 54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지해온 한일경제인회의인데요. 과거부터 많은 분들의 한일, 일한 연계를 위한 에너지, 열정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양국 관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좋아지려고 하는 징후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조 강연 속에서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제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도 업무를 하면서 같은 업계에 있긴 합니다만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서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조금 달라서 서로 쉽게 보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비즈니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하고 나서 많은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서울의 양국 회의장에서 제가 오늘 느꼈던 한일 경제 연계를 위한 에너지, 열정은 한일 양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느낄 수 있었고요.

서울과 도쿄에 오늘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언급되었던 기업 간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는 저희가 실제로 실행해 나간다면 더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물리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항공편을 포함해서 좀 더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힌트를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실행을 하심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또 회의장에 회원들께서 가득 자리하고 계신 것만으로 가슴이 울컥합니다. 시간상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 분의 말씀 청해 듣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마이크를 일본 측 회의장에 넘기겠습니다. 고레나가 코디네이터 부탁드립니다.

좌장 : 네 감사합니다. 서석숭 부회장님, 유명환 장관님 그리고 이수철 회장님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조 강연에서 스미토모 상사의 오카 회장님은 한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LS그룹의 구자열 회장님께서도 양국이 지금까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안에서 쌓아온 신뢰와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는 제2의 아메노모리 호슈, 오가키전공의 우에다 회장님께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양국 경제인들 간의 신뢰 관계를 지탱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찬성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경상 교수님, 사토 사장님, 박기태 연구원님께서 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문제, 인력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발표 안에서 공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일 경제인들이 직면한 과제에는 공통점이 참 많고, 이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에 크게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세, 미중 마찰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고, 지도가 없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도 기술의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틀을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인재 활용 문제도 한일 연계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일 경제인들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신뢰를 토대로 상호 연계하고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성공을 지금까지 이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인회의가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확인한 자리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총괄적인 의견이 이후 폐회식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이 되는데요. 우리 경제인들의 강력한 의지로써 이것을 채택하고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사회자인 우치다 전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고맙습니다.

휴식 (공동성명(안) 배포)

(일) 사회: 고레나가 전무님 그리고 발표와 발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체 회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폐회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짧아서 죄송하지만 휴식 후 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화장실 등을 이용하실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급적 빨리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회: 굉장히 짧습니다마는 공동성명안 배포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낭독이 있고 의결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화장실이라든가 휴게하실 회원사님이 계시면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리 패널 발표자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시죠.

사무국에서는 한국어본, 일본어본 공동성명안이 잘 배포되고 있는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 : 사무국에서는 공동성명안의 한국어버전과 일본어버전이 잘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신 공동성명안은 앞쪽이 한글 뒤쪽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 되었는지,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사무국. 공동성명안 배포가 잘 되었는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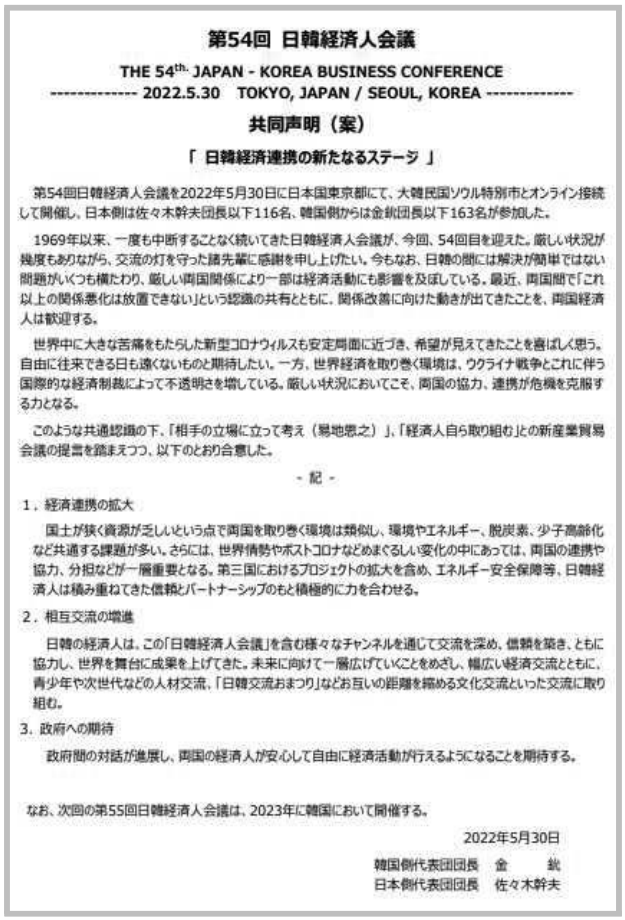
(일) 사회: 네, 쉬는 시간이 짧았는데요.
(한) 사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측 회의장도 착석을 하셔서 저희들 공동성명안에 대한 낭독을 경청하신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 회의장 진행해 주시죠. 우치다 전무이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5. 폐회식

(1)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일) 사회: 실제로 반나절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안을 양국 사무국이 발표하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그 후에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성명안을 일본어로 낭독하겠습니다.



第54回 日韓経済人会議

THE 54th JAPAN - KOREA BUSINESS CONFERENCE

---------- 2022.5.30 TOKYO, JAPAN / SEOUL, KOREA ----------

共同声明（案）

「 日韓経済連携の新たなるステージ 」

第54回日韓経済人会議を2022年5月30日に日本国東京都にて、大韓民国ソウル特別市とオンライン接続して開催し、日本側は佐々木幹夫団長以下116名、韓国側からは金銀団長以下163名が参加した。

1969年以来、一度も中断することなく続いてきた日韓経済人会議が、今回、54回目を迎えた。厳しい状況が幾度もありながら、交流の灯を守った諸先輩に感謝を申し上げたい。今もなお、日韓の間には解決が簡単ではない問題がいくつも横たわり、厳しい両国関係により一部は経済活動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最近、両国間で「これ以上の関係悪化は放置できない」という認識の共有とともに、関係改善に向けた動きが出てきたことを、両国経済人は歓迎する。

世界中に大きな苦痛をもたらした新型コロナウィルスも安定局面に近づき、希望が見えてきたことを喜ばしく思う。自由に往来できる日も遠くないものと期待したい。一方、世界経済を取り巻く環境は、ウクライナ戦争とこれに伴う国際的な経済制裁によって不透明さを増している。厳しい状況においてこそ、両国の協力、連携が危機を克服する力となる。

このような共通認識の下、「相手の立場に立って考え（易地思之）」、「経済人自ら取り組む」との新産業貿易会議の提言を踏まえつつ、以下のとおり合意した。

- 記 -

1．経済連携の拡大

国土が狭く資源が乏しいという点で両国を取り巻く環境は類似し、環境やエネルギー、脱炭素、少子高齢化など共通する課題が多い。さらには、世界情勢やポストコロナなどめまぐるしい変化の中にあっては、両国の連携や協力、分担などが一層重要となる。第三国におけるプロジェクトの拡大を含め、エネルギー安全保障等、日韓経済人は積み重ねてきた信頼とパートナーシップのもと積極的に力を合わせる。

2．相互交流の増進

日韓の経済人は、この「日韓経済人会議」を含む様々なチャンネルを通じて交流を深め、信頼を築き、ともに協力し、世界を舞台に成果を上げてきた。未来に向けて一層広げていくことをめざし、幅広い経済交流とともに、青少年や次世代などの人材交流、「日韓交流おまつり」などお互いの距離を縮める文化交流といった交流に取り組む。

3．政府への期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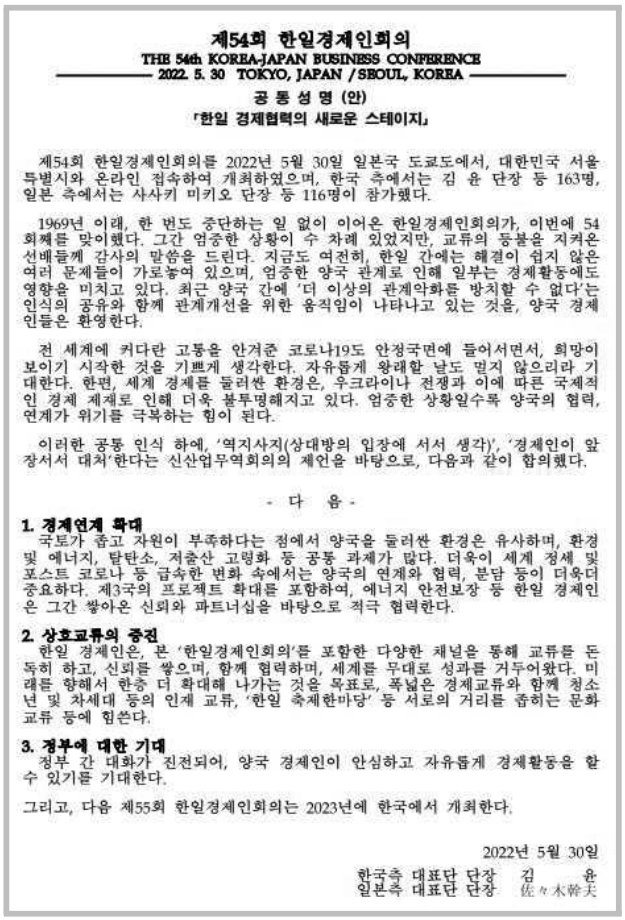
政府間の対話が進展し、両国の経済人が安心して自由に経済活動が行え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

なお、次回の第55回日韓経済人会議は、2023年に韓国において開催する。

2022年5月30日

韓国側代表団団長　金　銀

日本側代表団団長　佐々木幹夫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THE 54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22. 5. 30 TOKYO, JAPAN / SEOUL, KOREA

공 동 성 명 (안)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스테이지」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2년 5월 30일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16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다.

1969년 이래,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이어온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번에 54회째를 맞이했다. 그간 엄중한 상황이 수 차례 있었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온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양국 경제인들은 환영한다.

전 세계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19도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왕래할 날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이러한 공통 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경제연계 확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탄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하다.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

2. 상호교류의 증진

한일 경제인은, 본 '한일경제인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협력하며, 세계를 무대로 성과를 거두어왔다. 미래를 향해서 한층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폭넓은 경제교류와 함께 청소년 및 차세대 등의 인재 교류, '한일 축제한마당' 등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교류 등에 힘쓴다.

3. 정부에 대한 기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2년 5월 30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일) 사회: 이어서 한국어로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회의장의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성명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 버전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이상입니다. 일본 측 마이크 받아주시죠.

(일) 사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공동성명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면 승인해 주실 분께서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그럼 채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 사회: 공동성명안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찬성에 의해서 무사히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폐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단장님께 폐회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측 단장인 김윤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양국단장 폐회인사

한국측 단장
김 윤 한일경제협회회장

어느덧 오늘 경제인들의 만남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조연설자, 발표자, 경청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설, 발표, 토론에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짐, 정부에 바라는 진솔한 건의는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을 향한 공감대 형성이 너무 반가웠고, 실질적인 여러 조치들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간 우리가 잃은 것도 너무 많지만 새롭게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한일 간 우호는 우리 가슴에 더욱 절박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인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민간을 대표하는 경제계가 현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 못지않게 힘들었던 여건들은 바로 코로나19 사태였기 때문에 질병 극복이 너무 절실했었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양국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하였기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게 될 제55회 회의에는 그저 소망이 아닌 현실로서 회포를 푸는 그 날이 꼭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 도쿄회의장 마이크 받아주시죠.

(일) 사회 : 김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의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여러분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도 서울과 도쿄의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공동성명안에도 숫자가 나왔는데 양국 참가자는 280명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반나절이라는 제한된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솔직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었고,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일경제협회의 김윤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때, 어려울 때야 말로 한일 간의 경제 교류, 문화 교류가 중요하며 이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

해 힘차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신을 공동 성명으로서 채택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개회식 때는 바쁘신 가운데 한국 측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일본 측에서는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신 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신 분 그리고 참가해주신 여러분, 통역과 행사장 준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일 양국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 경제인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곧 올 건데요. 내년이야말로 서울 회의장에서 한국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얼굴을 뵙기를 기대하고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결실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하나마 폐회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사회: 감사합니다. 사사키 회장님과 김윤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양국 회의장을 준비를 해주신 분들,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 시스템을 운영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훌륭한 통역으로 이 회의를 뒷받침해 주신 통역사분들께도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야말로 한국에서 열리는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직접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한국에서 정중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료 -